

국악과 양악의 어울림
아리랑, 아!

아리랑



2015. 5. 27. | 수 |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홍화철 연주 부산국악오케스트라 사회 오정해

협연 소리 오정해 전지바이올린 유진박 피아노 에르노 페어 비파 업위양 사쿠라 소프라노 남순천 윤선기 바리톤 김창돈 오세민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티켓 전석 1만원 문의 051.607.6066 정기회원 051.607.3100 *초등학생이상관람

May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5 05 vol.281



Cover Story

국악과 양악의 어울림 '아리랑, 아! 아리랑' 반갑습니다 2015 부산연극제 희곡상 수상자 김문홍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소형 공동주택의 새로운 모색

부록 프로그램 가이드

오래된 미래

부산시립무용단 제72회 정기공연 및 부산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Ancient Futures

구성·예술감독: 홍경희
극작·연출: 유희성
작곡·음악감독: 강상구

김진홍
김명자
김은경
엄옥자
김매자
국수호
배정혜
홍경희
부산시립무용단

2015. 5. 28(목)~29(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부산시립무용단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54, 607-3107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전쟁같은 일상, 당신을 구해줄 영웅이 돌아온다!
1597년 7월 29일 밤! 그리고 난중일기에는 없는 30일과 31일. 그 3일간의 미스터리!
위인전속 이순신은 온데 간데 없고, 격하게 인간적인 이순신의 행적이 밝혀진다!



코미디 뮤지컬의 본좌

5월 29일 ~ 6월 28일 KNN시어터 (KNN타워 지하 1층)

평일 화~금 8시 / 토요일 4시, 7시 / 일요일·공휴일 2시, 5시 / 일요일 공연없음 공연문의 KNN시어터 051.664.7880 단체문의 051.664.7881 티켓문의 인터파크 1544.1555
주최·주관 KNN (주)디오르골씨어터컴퍼니 제작 (주)디오르골씨어터컴퍼니 원안 美人街



KING OF THE COMEDY MUSICAL

2008 창작팩토리 최우수상 선정
2009 창작 초연 뮤지컬 BEST 작품 1위
2012 한국뮤지컬협회 창작뮤지컬 지원사업 선정작



THE GREAT SOUL

Beethoven · Sibelius

2015. 5. 14 (목) 저녁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T.I.F 심포니 오케스트라

PROGRAM

이정연 Rhapsody on the theme of Long Long Ago for Orchestra
Beethoven Piano concerto no.5 in E flat major op.73 "Emperor"
Sibelius Symphony No.2 in D Major Op.43

예술감독 김원명



지휘 이효상 피아노 조현선 작곡 이정연

주최 |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T.I.F 심포니 오케스트라 후원 | 부산원음방송,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입장료 | 2천원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문의 | 051)220-5812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총제작 | 김일택 총괄기획 | 공영식 홍보 | 남수현 무대감독 | 이순재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신경범

을숙도명품콘서트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지원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제4회 부산사람들

이태석 기념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2015. 5. 30 | 토 | PM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예술감독 오충근(지휘)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협연 소프라노 김경희 · 고예정
테너 임충진 · 홍지형
베이스 양재원

故 이태석 신부

주최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후원 부산광역시 부산은행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 MBC KNN

문의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http://cafe.daum.net/johnlee1004 T. 051-637-0125

관람응모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http://cafe.daum.net/johnlee1004

| 추첨 후 다음카페 공고 및 개별통지 |

5월에는 내 마음의 노래들

PROGRAM

- Beethoven 5
- 눈물 젖은 두만강
- Love me tender
- Desperado
- The Rose
- Bohemian Rhapsody
- 거위의 꿈
- 한계령
- 마포 종점
- 광화문 연가
- 우리는
- You raise me up
- 재즈 할렐루야
- Oh happy day
- 아름다운 노래들 2
- 동요 모음



노래 박일봉 베이스 김상배 기타 박경욱

2015. 5.14 | 목 |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조우현 (객원 지휘자)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문의 홍보팀 607-3108 공연운영팀 607-3142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입장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 서클서비스 운영(무료)

- 출발지: 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19:00(공연있는 날에 한함)

C o n t e n t s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ultural Story⁺

- 08 커버스토리
국악과 양악의 어울림 '아리랑, 애 아리랑'
- 10 공연일정
- 12 반갑습니다
2015 부산연극제 희곡상 수상자 김문홍
- 14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세뜨(Sète)에서 열리는 사진, 영상, 비디오 축제
Festival ImageSingulières _강미라
- 18 불멸의 거장_박목월^㉔
자연과 향토적 서정의 초기 시_장운익
- 20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소형 공동주택의 새로운 모색
- 김용남 건축가의 공동주택 3제_강기표
- 22 그곳에 가면
부산시립미술관 이우환 공간
- 24 우리는 문화가족
월드뮤직음악감상회 '공감'

Boards Inside⁺

- 28 프리뷰
- 34 리뷰
- 36 프로그램 가이드

Center News⁺

- 56 새로 나온 책
- 57 새로 나온 음반
- 58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60 부산문화회관 소식
- 62 테마가 있는 여행
- 64 부산문화회관로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5년 5월호 통권 281호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811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발행인 박성택 편집인 박원철 편집 백경옥 정복엽 발행일 2015년 4월 25일 인쇄처 효민디앤피 051 807 51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악과 양악의 어울림 '아리랑, 아! 아리랑'

5월 27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607-6066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국악과 양악의 어울림축제 '아리랑, 아! 아리랑'이 5월 2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국악계의 프리마돈나 소리꾼 오정해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이번 무대는 지휘자 홍희철이 이끄는 부산 유일의 민간 국악단체인 부산국악오케스트라와 천재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헝가리 출신 피아니스트 에르노 페어, 일본에서 활동 중인 비파연주자 엽위양과 사쿠라 부녀 그리고 소프라노 남순천, 윤선기, 바리톤 김창돈, 오세민이 출연,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현재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홍희철 지휘자를 중심으로 30여 명의 전문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국악오케스트라는 지난 2004년 '부산국악실내악단 여운'으로 창단, 지금까지 1,000회가 넘는 공연을 치러낸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 국악오케스트라이다. 그동안 영화의 전당 특별연주회, 구 문화회관 기획공연, 국제신문 한낮의 유콘서트, MBC목요음악회를 비롯해 창원컨벤션센터 국제회의, 일본 오사카영사관 초청공연 등 부산을 알리는 민간사절단으로서 그 역할도 충실히 해오고 있다.

소리꾼으로도 무대에 서는 오정해는 지난 1992년 영화 '서편제'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국악계 스타이다. 중학교 1학년 때 제1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부 장원을 차지하면서 당시 심사를 맡았던 故 만정(晩汀) 김소희 선생의 마지막 직계 제자로 판소리 수업을 받은 오정해는 1992년 미스춘향 집에 뽑힌 것을 계기로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 '태백산맥', '축제', '천년화' 등 네 편의 영화

에 출연했다. 영화 '서편제'로 제31회 대중상 신인여우상, 제1회 상해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제13회 영평상 신인여우상 등 그해 영화제를 휩쓴 오정해는 지난 2004년에는 부산시립예술단 합동공연 총체가무악극 '즐거워라, 무릉도원'으로 부산시립예술단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오정해는 동아방송예술대학 전임교수로 있으며 소리꾼으로서 뿐 아니라 영화, 연극, 뮤지컬, 라디오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열정적인 무대매너와 폭발적인 연주로 데뷔 당시부터 화제를 불러모았던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도 이번 무대를 통해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3살의 어린 나이에 바이올린을 시작해 8세 때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줄리어드 예비학교에 입학한 유진박은 10세 때 웨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 13세에 링컨 센터(Lincoln Center)와 협연하면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이름을 알렸다. 유진박은 지난 1996년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한 후 클래식과 팝, 재즈, 록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파격적인 전자 바이올린 연주를 선보이며 국내에 혜성같이 등장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유진박 외에도 '신선하고 강렬한 리듬감을 구성하면서 재치가 넘치는 색채감 있는 훌륭한 연주'로 정평이 나 있는 피아니스트 에르노 페어, 섬세한 테크닉과



사회, 소리 오정해



전자바이올린 유진박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폭넓은 연주로 호평받고 있는 장성(長城)악단 대표 비파연주가 엽위양(葉衛陽)과 젊은 비파연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그의 딸 사쿠라가 출연해 다채로운 연주무대를 선사한다. 이밖에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있는 소프라노 남순천,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Trossingen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KA), 최고연주자과정(SO)을 졸업하고 독일 Chemnitz 오페라극장 단원을 역임한 소프라노 윤선기,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이태리 Roma A.D.E.M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전문예술단체 한울림합창단 지휘자, New Classic Artist The FEEL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바리톤 김창돈,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이태리 밀라노 시립음악원, 밀라노 G. Donizetti 시립음악원, 루마니아 Accademia Teatro di Timisoara를 졸업하고 현재 경희대학교 대학원 공연예술학과 박사과정, 경성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바리톤 오세민이 출연, 4인 4색의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5

2015 / MAY

CULTURAL SCHEDULE

청령해 부산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p>전시실</p> <p>제23회 대한민국 서예문화대전-대전시실 4월 30일(목)-5월 2일(토) / 사무국장 장오중 010-9775-5151</p> <p>남구문화예술회 합동전시회-중전시실 5월 2일(토)-5월 5일(화) / 남구문화예술회 624-1333</p> <p>제12회 부산서예전람회 공모전-대·중전시실 5월 9일(토)-5월 12일(화) / 한국서가협회 부산지회 759-8858</p> <p>제21회 대한민국 전시에대전-대·중전시실 5월 13일(수)-5월 16일(토) / 대한민국 서예인연합회 868-5236 ※시상식 5월 16일(토) 14:00 - 국제회의장</p>	<p>제19회 아시아미술대전-대전시실 5월 18일(월)-5월 21일(목) / 윤호철 010-3592-6990</p> <p>제35회 전국서도민전-대·중전시실 5월 23일(토)-5월 27일(수) / (사)한국서도예술협회 441-7081 ※시상식 5월 23일(토) 15:00 - 국제회의장</p> <p>한국추사서화예술 전국공모대전-대전시실 5월 29일(금)-5월 31일(일) / 한국추사서예가협회 070-8868-7077 ※시상식 5월 29일(금) 14:00 - 국제회의장</p> <p>부산디자인사랑 제10회 사진전시회-중전시실 5월 29일(금)-5월 31일(일) / 변성윤(010-4558-2463)</p>				<p>1</p> <p>중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프랑스 극단 디퓨전 '말팔랑이 길들이기' 19:30 2만 5천원 · 2만원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p>	<p>2</p> <p>중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프랑스 극단 디퓨전 '말팔랑이 길들이기' 17:00 2만 5천원 · 2만원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p> <p>소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Dynamic Fringe_한국 연극공동체 DIC '맥베스, 그는 잠을 죽였다' 20:00 균일 1만 5천원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p>
<p>3</p> <p>소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Dynamic Fringe_한국 연극공동체 DIC '맥베스, 그는 잠을 죽였다' 17:00 균일 1만 5천원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p>	<p>4</p> <p>대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Concept _러시아 발틱 하우스 '맥베스' 19:30 2만 5천원 · 2만원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p> <p>중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축하공연 극단 누리예 '사초' 19:30 균일 1만5천원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p> <p>소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Dynamic Fringe_한국 연극공동체 DIC '맥베스, 그는 잠을 죽였다' 20:00 균일 1만 5천원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p>	<p>5</p> <p>대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Concept _러시아 발틱 하우스 '맥베스' 19:30 2만 5천원 · 2만원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p> <p>중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축하공연 극단 누리예 '사초' 17:00 균일 1만5천원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p> <p>소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Dynamic Fringe_한국 연극공동체 DIC '맥베스, 그는 잠을 죽였다' 17:00, 20:00 균일 1만 5천원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p>	<p>6</p> <p>대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Concept _러시아 발틱 하우스 '맥베스' 19:30 2만 5천원 · 2만원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p>	<p>7</p> <p>중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Concept _한국 극단 목화 '템페스트' 19:30 2만 5천원 · 2만원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p> <p>소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Dynamic Fringe_한국 극단 진일보 '바보 햄릿' 20:00 균일 1만 5천원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p>	<p>8</p> <p>중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Concept _한국 극단 목화 '템페스트' 19:30 2만 5천원 · 2만원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p> <p>소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Dynamic Fringe_한국 극단 진일보 '바보 햄릿' 17:00, 20:00 균일 1만 5천원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p>	<p>9</p> <p>대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 '이탈리아 Teatro Tascabile di Bergamo '로미오와 줄리엣' 17:00 2만 5천원 · 2만원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p> <p>중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Concept _한국 극단 목화 '템페스트' 19:30 2만 5천원 · 2만원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p> <p>소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Dynamic Fringe_한국 극단 진일보 '바보 햄릿' 17:00, 20:00 균일 1만 5천원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p>
<p>10</p> <p>대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 '이탈리아 Teatro Tascabile di Bergamo '로미오와 줄리엣' 17:00 2만 5천원 · 2만원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p>	<p>11</p> <p>대 시민과 함께하는 2015 평화통일콘서트 19:30 초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866-6363)</p> <p>중 제49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심정자, 성민주 피아노 듀오연주회' 19:30 균일 1만원 부산피아노듀오협회(010-8524-7913)</p> <p>소 2015 제29회 부산청소년연극제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국 부산시민을 위한 오페라 감상 특강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 14:00 균일 1만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2~4)</p>	<p>12</p> <p>중 제49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피아노 듀오의 밤' 19:30 균일 1만원 부산피아노듀오협회(010-8524-7913)</p> <p>소 2015 제29회 부산청소년연극제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13</p> <p>중 어린이재단 초록우산을 위한 자선음악회 '한국가곡과 아리아의 밤' 19:30 균일 1만원 조윤환(010-8455-2383)</p> <p>소 2015 제29회 부산청소년연극제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14</p> <p>대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5월에 들는 내마음의 노래들'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2, 3108)</p> <p>중 가보들 선교오페라단 새터민 선교를 위한 악극 '그 길에 목숨을 걸다' 19:30 균일 1만원/서명보(010-2567-3994)</p> <p>소 2015 제29회 부산청소년연극제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15</p> <p>중 제39회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피아니스트 최진현 독주회' 19:30 초대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010-6565-3930)</p> <p>소 2015 제29회 부산청소년연극제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16</p> <p>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 창작 음악극 '두부와 콩나물' 15:00 1만원 · 5천원 부산문화회관(607-6065)</p> <p>중 제39회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솔로와 듀오의 밤-하나, 그리고 둘' 19:30 초대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010-6565-3930)</p> <p>소 2015 제29회 부산청소년연극제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17</p> <p>대 2015 부산신인음악회 19:30 초대/부산음악협회(634-1295)</p> <p>중 전장수 클래식기타 독주회 17:00 균일 2만원/브라보컴(02-3463-2468) We Music(010-6416-5482)</p> <p>소 2015 제29회 부산청소년연극제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18</p> <p>소 2015 제29회 부산청소년연극제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국 부산시민을 위한 오페라 감상 특강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 14:00 균일 1만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2~4)</p>	<p>19</p> <p>중 아모로제와 함께하는 봄의 향기 19:30 1만원 · 5천원 아모로제성악연구회(010-3868-2808)</p> <p>소 2015 제29회 부산청소년연극제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20</p> <p>대 제11회 청소년, 일반을 위한 박현주 Wings Dance Company 공연 19:30 2만원 · 1만원/박현주(010-4552-9605)</p> <p>중 제11회 동의피아노소사이어티 정기연주회 19:30 초대/서주옥(010-2252-3010)</p> <p>소 2015 제29회 부산청소년연극제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21</p> <p>대 부산예술고등학교 제28회 음악정기연주회 19:00 초대/부산예술고등학교(514-1232)</p> <p>중 부산음악사랑회 제9회 정기연주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30 초대/부산음악사랑회(010-6428-7019)</p> <p>소 2015 제29회 부산청소년연극제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22</p>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0회 정기연주회 '마에스트로 리 신차오의 라발스' 19:30 2만원 · 1만5천원 · 1만원 · 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5, 3106)</p> <p>중 창작합창제 제10회 정기작품 발표회 '음악에 길을 묻다 VI' 19:30 초대 조혜선(010-8501-5117)</p> <p>소 2015 제29회 부산청소년연극제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23</p> <p>대 KNN 창사 20주년 기념 '2015 The Classic 경남' 19:30 10만원 · 8만원 · 5만원 · 3만원 KNN(055-283-0504)</p> <p>중 제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콘체르토 칸타티나 10:00 부산마루국제음악제(516-8293)</p> <p>소 토요일상설무대 - 민들레 인형극단 16:00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 부산문화회관(607-6056)</p>
<p>24</p> <p>중 2015 김희은의 춤 '칼의 노래' 16:00 2만원 · 1만원 조지혜(890-2513, 010-7770-5395)</p>	<p>25</p> <p>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1회 가족사랑 음악콩쿠르 09:00 무료/강림문화재단(637-5678)</p>	<p>26</p> <p>소 오페라의 이해 14:00 부산광역시 인제개발원(366-7534)</p>	<p>27</p> <p>중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악과 양악의 어울림 아리랑, 애 아리랑' 19:30 균일 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66)</p>	<p>28</p> <p>대 부산시립무용단 제72회 정기공연 '오래된 미래'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54, 3107)</p> <p>중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0회 정기연주회 김범수 제4대 수석지휘자 취임연주 '비전&도약' 19:30 균일 2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6, 3105)</p>	<p>29</p> <p>대 부산시립무용단 제72회 정기공연 '오래된 미래'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54, 3107)</p> <p>중 효원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The Legend' 19:30 초대/백규진(010-3859-4225)</p> <p>소 김소현 해금독주회 'One fine day' 19:30 무료/김소현(010-4642-9310)</p>	<p>30</p> <p>대 제4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19:30 초대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637-0125)</p> <p>중 제7회 라온제나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8:00 초대/이상훈(010-2066-1331)</p> <p>소 토요일상설무대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6:00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 부산문화회관(607-6056)</p>

〈예술예의 초대〉는 카페베네 부산시 전매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소** 소극장 **국** 국제회의장



인터넷 예매



공연일정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http://culture.busan.go.kr>을 클릭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2015 부산연극제 희곡상 수상한

김문홍



- 4월 12일 막을 내린 제33회 부산연극제는 5개부문에서 수상한 극단 누리에 '사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사초'가 탄생하기 까지 오랜 시간 희곡과 씨름한 극작가 김문홍은 '사초'로 부산연극제에서 5번째 희곡상을 수상하며 후배 연극인, 제자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다.

“극단 누리와 함께 한 사초는 어느 때보다 신경을 많이 쓴 작품인데 고생한 만큼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쁩니다. 전국연극제에서도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단원들과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해야죠.”

'사초'는 그의 희곡작품 중 30번째로 무대화된 작품이면서 그에게 부산연극제 5번째 희곡상을 안겨준 작품으로 의미가 각별하다. 지난해 발간한 그의 다섯 번째 희곡집 '지상의 방 한 칸'에 수록된 '사초'의 원 제목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이다. 이 작품은 2009년 극단 시나위가 공연한 '대숲에는 말이 산다'와 2010년 극단 하늘개인날이 무대에 올린 '방외지사 이옥'에 이은 '저항 3부작'의 완결편으로, 가상 인물인 젊은 사관과 연산군의 대결을 통해 언론의 사명과 책임의식을 은유, 언론에 대한 저항, 자유에 대한 저항을 무대에서 보여주며 큰 호평을 받았다. 2009년 시나위가 공연한 '대숲에는 말이 산다'는 부산연극제 대상을 거쳐 전국연극제에서 단체우수상과 희곡상을 수상했고, '방외지사 이옥'은 극단 하늘개인날 광종필 연출로 2010년 부산연극제 경연부문에 참가해 주인공으로 출연한 박현형 씨가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바 있다.

1976년 등단한 이래 소설, 동화, 희곡, 연극평론 등 분야에서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쳐온 김문홍은 그동안 한국연극협회 부산지부장, 부산연극제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부산창작극 연구회 공동대표, 부산희곡작가협회장과 부산시립극단 창단 준비위원 및 운영위원을 역임했을 정도로 부산연극계에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지난 해까지 4권의 소설집, 11권의 동화집, 5권의 희곡집, 2권의 연극평론집을 비롯하여 부산연극사, 부산소극장연극사 등 30여 권의 저서를 출간한 김문홍 선생은 정년퇴임 후 대학에서 희곡 창작론과 실기론 등을 강의하며 부산연극에 관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의 활동은 한국동화문학상, 한국아동문학상, 이주홍 문학상, 자랑스런 연극인상 등 많은 상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와 연극과의 인연은 부산교육대학 재학중 극단 한새벌에서 시작되었다. 처음 몇 작품은 배우로 활동했지만 1980년 첫



2015년 부산연극제에서 5개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은 극단누리의 '사초'

희곡 '수직환상'을 시작으로 희곡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지역연극계에서 오랫동안 회자되는 굵직한 작품들을 발표해 왔다. 그의 희곡작품은 반 이상이 부산연극제에서 발표되었고 작품들은 5권의 작품집에 수록되어 있다.

김문홍 선생의 작품은 메시지가 강하다.

“연극은 재미와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어야 합니다. 작품을 통해 연극을 보는 관객들의 의식이나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우리들의 행동까지 변화시키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난해는 연극에 대한 그의 열정과 작품을 좋아하는 사하문화 사랑방 최우석 원장의 도움으로 부산지역 창작 희곡 활성화를 위해 '김문홍 희곡상'이 제정되기도 했다. '김문홍 희곡상'은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극작가의 이름을 건 우리나라 첫 희곡상으로 의미가 깊다. 부산지역 희곡 작가의 창작 희곡을 대상으로 1월부터 12월 15일까지 공연된 작품 중에서 심사를 거쳐 시상한다.

“예선 후보 작품들은 제가 미리 심사를 해서 김문홍 희곡상 운영위원회에 최종심사를 올립니다. 현재 부산연극인들의 평균 연령은 30대 중반입니다.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보고 그들과 호흡하다 보면 무대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나이도 잊게 됩니다.”

매 작품마다 자신을 단련하며 새로운 시도를 해온 젊은 노장 김문홍 선생. 5월에는 김문홍 선생과 극단 누리에의 젊은 열정이 빛어낸 2015년 부산연극제 최고의 작품 '사초'의 부산국제연극제 초청공연과 6월 전국연극제 공연을 앞두고 있어 다시 젊은 연극인들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김문홍 선생은 '사초'를 떠나보낸 뒤 노인들의 외로움과 자식과의 갈등 등을 겪고 있는 주변 노인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한 새로운 작품으로 관객들과 만날 계획이다.

세뜨(Sète)에서 열리는 사진, 영상, 비디오 축제

Festival ImageSinguilières

글 강미라 프랑스 통신원



“

프랑스 남부 지중해(Méditerranée)에 위치한 어촌도시 세뜨. 거의 작은 섬 같이 바다와 운하와 연못으로 둘러싸인 세뜨는 '프랑스 남부의 베니스'라 불리우는 곳이다. 세뜨(Sète)에서는 5월이 되면 사진, 영상, 비디오의 페스티벌 'Festival ImageSinguilières'이 열린다. 'ImageSinguilières'는 '독특한 유일한 영상들'이라 해석해 볼 수 있으며 이 축제를 위해 세계 곳곳의 사진작가들을 초대, 세뜨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예술가들의 작업을 돕고 활성화시켜 문화예술을 알리는 것이 이 도시축제의 프로젝트이다. 이 축제는 도와 시 그리고 각 단체, 개인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면서 모든 이들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올해로 7회를 맞는 'Festival ImageSinguilières'는 오는 5월 13일부터 31일까지로 8곳의 장소에서 펼쳐진다. 초대받은 사진작가들은 Edward S. Curtis(미국)와 Jérôme Brézillon(프랑스), Stéphane Lavoué(프랑스), Carlotta Cardana(이태리), Marie Baronnet(프랑스), Bieke Depoorter(벨기에), Juliana Beasley(미국), Emeric Lhuisset(프랑스), AD Nuis(네덜란드), Rodrigo Gomez Rovira(칠레), Jacob Aue Sobol(덴마크), Jens Olof Lasthein(스웨덴), Payram(프랑스-이란), Yvon Lambert(룩셈부르크) 등이며 몇몇 작가들은 미리 초대받아 이 도시에서 머물며 레지던스를 통해 숙박을 해결하며 전시회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사진작가 Michael Ackerman은 축제 기간 중 3일동안 워크숍을 주최하는가 하면 어떤 사진작가들은 몇몇 학교에 들러 학생들에게 사진 작업에 대해 알리고 예술에 눈뜨도록 하는 등 문화교류에 힘쓰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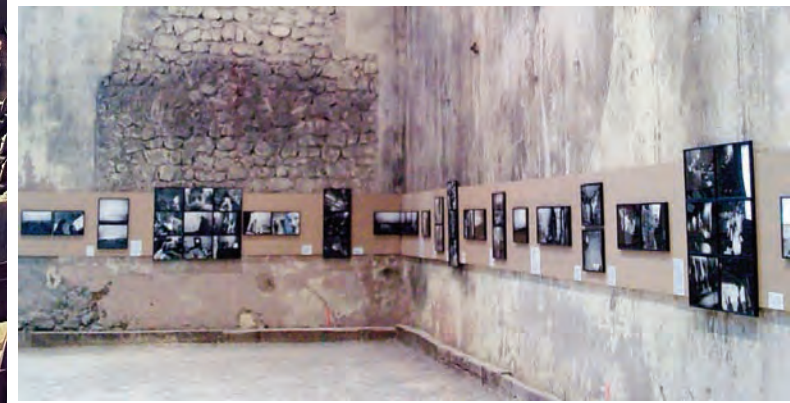
축제가 시작되는 첫 주에는 사진작가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사회의 다양한 현실과 비판, 영상을 통한 역사의 흔적과 삶의 흔적 등 그들의 작업세계의 설명도 들을 수 있다. 한 전시장 바로 옆에는 편하게 이야기하고 즐길 수 있도록 바(Bar)를 설치하여 지역산 포도주와 생굴(Bouzigues굴은 프랑스내에서도 정평이 나 있다), 그리고

세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먹을거리인 티엘(tielle-해산물과 토마토 소스로 속을 채운 파이 종류) 등을 맛볼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어떤 날은 디제이를 초대, 라틴음악과 살사, 재즈, 힙합, 브레이크댄스 등 파티를 열어 축제의 기분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다.

전시가 열리는 곳은 모두 8곳에서 10곳 정도로, 세프의 기차역에서 내리면서부터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다. 올해 역시 8곳의 전시장 중 한 곳은 세프의 기차역이다. 시내 곳곳에 관람장소들이 흩어져 있기에 관광안내소(Tourist office)에서 시내 지도를 챙기는 것은 필수이다. 숙박은 호텔을 예약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주민들의 아파트 전체를 빌리거나 방을 빌리는 것으로 경비를 줄일 수 있고, 더불어 현지인들의 생활을 바로 접할 수 있어서 좋다.

세프는 우리나라의 한 구에 해당할 정도로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전시 관람을 걸어서 할 수 있다. 세프의 5월은 너무나 화사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산책하는 기분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운하를 따라 전시장 곳곳을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도시 구석구석을 구경할 수 있다.

연극배우이자 영화배우, 연출가, 아비뇽축제의 창시자인 장 빌라(Jean Vilar)의 집앞을 지나다 보면 옛 교회를 전시회장으로 변형시켜 놓은 웅장한 전시장을 사진과 함께 구경할 수 있



바다의 한 절벽 위에 설치된 바다 야외공연장에서 사진전이 열린다.



다. 또 걷다 보면 한없이 펼쳐진 바다의 한 절벽에 위치한 바다 야외공연장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은 평소 관객이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는 특이한 반원형 계단식으로 이 장소에서도 역시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다.

공연장을 뒤로하면 유명한 해안 묘지(cimetière de marin)가 바다를 향해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바로 이 곳에 세프가 배출한 유명한 문학가이자 시인, 철학자인 폴 발레리(Paul Valéry), 장 빌라(Jean Vilar),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시적인 음악을 작사, 작곡하여 통기타 가수로 프랑스인의 기억에 남아있는 조르주 브라상(Georges Brassens)의 묘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많은 화가들이 아름다운 세프 머물면서 작업을 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래서 걷다 보면 많은 화랑들도 지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일까, 지나치는 모든 이들이 예술가로 보이는 착각도 해본다.

작은 어촌도시지만 누구나 기꺼이 자원봉사를 지원하며 문화활동을 위해 모두가 하나되는 모습을 지켜보면 마음 한곳이 따뜻해진다. 언젠가는 한국의 사진작가들도 초대되어 이곳에서 작업하고 그들의 작품세계를 펼쳐 보인다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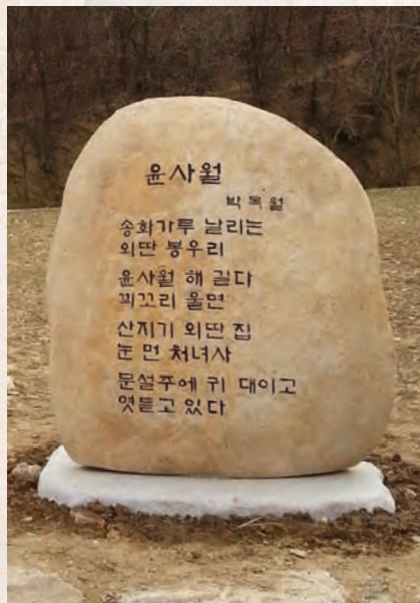
글쓴이 강미라는 경성대학교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졸업후 '현대무용단 줌'에서 활동하다 1998년부터 프랑스 몽펠리에(Montpellier)에서 Marc Vincent, Emilio Calcagno, Jésus Hidalgo, Massimo Furlan, Youngho Nam, Sylvie Deluz, Thierry Raymond, Soon Ka 등 여러 안무자와 작업해오고 있다.



자연과 향토적 서정의 초기시

글 장윤익 동리목월문학관장 · 문학평론가

박목월의 시는 시집 〈청록집(靑鹿集)〉, 〈산도화(山桃花)〉를 중심으로 한 초기시, 〈난기타(蘭其他)〉, 〈청담(靑潭)〉을 중심으로 하는 중기시, 〈경상도(慶尙道) 가랑잎〉, 〈사력질(砂磔質)〉, 〈무순(無順)〉의 후기시로 나누어진다. 작가 자신은 〈산도화〉 이후 그가 관심을 가지고 추구한 주제나 세계가 5년을 주기로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박목월의 초기 시는 자연과의 교감과 향토적인 정서를 배경으로 하여 본원적인 고향을 추구한 〈청록집〉과 〈산도화〉에 수록된 시편들이다.

松花 가루 날리는 / 외딴 봉우리 // 운사월 해 길다 / 피꼬리 올면 // 산지기 외딴 집 / 눈 먼 처녀사 // 문설주에 귀 대이고 / 엇듣고 있다.

-‘운사월’ 전문

‘운사월’은 ‘청노루’, ‘나그네’와 더불어 박목월 시 중에서 가장 애송되는 시편들이다. ‘운사월’은 작자가 밝힌 것처럼 “애절한 운사월의 계절감과 그것과 조화되지 않은 또 하나의 심성, 어둡고 괴로운 고적감이 꿈꾸는 서러운 동경 등 여러 가지 착종된 심정으로 ‘운사월’을 노래한” 것일 수도 있다.

‘운사월’은 우리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보다 근원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외딴 봉우리’, ‘피꼬리’, ‘외딴집’, ‘눈 먼

처녀’ 등의 시구는 모두 고적한 풍경들이다. 이 외로움 속에서 자연세계의 소리와 풍경들은 시속에서 민요의 가락과 어울려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

눈 먼 처녀는 주변의 정경을 보지는 못하나 날카로운 감각과 마음의 눈으로 자연 속에 잠재되어 있는 신비로운 원형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다시 재생시킨다. 이와 같은 원형적 고향에 대한 추구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민족 정서에 이어져서 목월의 시가 지속적으로 읽히게 되는 이유가 된다.

박목월의 시는 가장 압축적인 시 형식 속에 무한한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으면서, 전통적인 우리의 율조를 시의 가락으로 원용하여 독자들에게 친근감을 가지게 하는 데서 특이한 시적 매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정서는 고향 탐구의 정서와 조화됨으로써 우리의 민족정서와 더욱 가깝게 접근했던 것이다. ‘운사월’과 ‘청노루’, ‘나그네’는 그러한

성격의 시들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나그네’도 그러한 시의 범주에 속한다.

시 ‘운사월’과 ‘청노루’는 배경만 있을 뿐,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나 내용은 아무 것도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속에는 외로운 산지기의 이야기, 눈이 멀게 된 눈 먼 소녀의 긴긴 내력의 이야기, 그리고 항상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 애틋한 사연, 피꼬리와 송화 가루 날리는 산새와 자연과의 대화 등등의 이야기가 장편소설 한 권을 쓰고도 남을 긴 긴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또한 전통적인 율조와 향토적 정서의 결합은 김소월이 먼저 시도한 바 있기는 하나, 박목월은 그와는 다른 차원의 본원적 고향의 탐구에서 김소월과 차별성을 보이이고 있다.

江나루 건너서 / 밭 밭길을 / 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네 // 길은 외줄기 /



시집〈산도화〉



/ 南道三百里 // 술 익는 마을바다 / 타는 저녁놀 / 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네
-‘나그네’ 전문

박목월은 인생의 심원한 곳을 탐구하고 달관의 경지를 시로 승화시켜 독자들을 그의 시 세계로 끌어들인다. ‘나그네’는 그러한 작품류, 특히 동양적인 달관의 경지를 전통적 운율에 의해서 예술적 가치를 거둔 대표적인 작품이다. 우리 민요의 가락과 호흡을 같이 하는 ‘나그네’는 어느 때 읽어도 향토적 정서의 황홀함에 빠져들어 가게 한다.

김종길(金宗吉) 시인을 비롯한 문학연구자들은 ‘나그네’를 한국 낭만시의 ‘최고의 것’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박목월 시의 특성은 전통적 민요조의 리듬과 간결한 표현 및 의미의 압축에서 오는 최소한의 언어로서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 오는데 있다.

목월은 시의 창작 이유를 종래의 시인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시의 핵심은 이미지가 살려내는 새로운 창작기법의 도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그는 잘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치하의 강압과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민중들의 가슴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은 전통적 율조가 바탕이 된 선명한 이미지의 미적 구축이라는 점을 그는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목월의 시는 항시 우리 민중들과 가까운 자리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시적 생명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소형 공동주택의 새로운 모색

- 김용남 건축가의 공동주택 3제

글 강기표 건축가, 건축사사무소 아체 ANP 대표, 동명대학교 · 인제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도시가 성장하고 고도화되고 핵가족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1~2인이 거주하는 소형 공동주택의 증가 추세가 폭발적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과 오피스텔¹⁾로 분류되는 소형 공동주택은 분양가와 공사비, 토지가격, 공사기간 등의 개발과 사업이라는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되어, 공간의 질적 또는 문화적 고려는 등한시 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주택난의 해결이라는 정책적 방향도 이에 큰 몫을 더하여 공동체 의식의 결여, 프라이버시 보호의 취약성, 최소의 주차 대수, 안전성 확보 문제 등과 재산적 투자라는 투기성과 결합되며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김용남²⁾ 건축가의 최근 세 작품은 소형 공동주택의 고민거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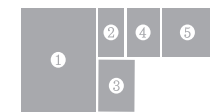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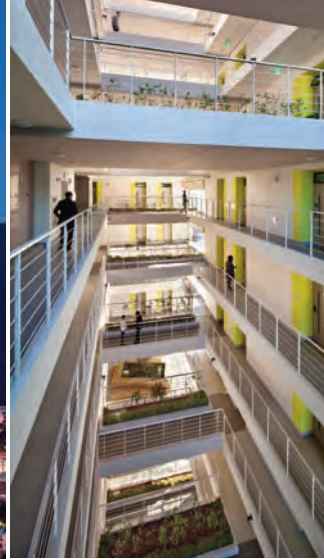
레지던스 엘가 (L) - 잃어버린 마당을 찾아서

지난해 6월호 옥상의 재발견에서 언급하였던 레지던스 엘가는 부산 경남의 젓줄인 낙동강 하류에 인접한 화명 신시가지의 상업지역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레지던스 엘가는 산업화된 아파트가 주거의 주요 수단으로 들어서며 잃어 버렸던 마당의 회복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다. 각 세대마다 갖고 있는 마당은 흔히 보이는 아파트의 발코니가 아니다. 낙동강의 자연을 향유하고, 이웃과 조우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단위 세대는 ㅁ자 3칸이 L자로 구성되며 계단식 적층에 의해 하부층의 지붕이 상층부의 마당이 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항상 3면 이상이 외기에 접하며 단위 세대가 계단식 적층 방식에 의해 전체의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 이런 방식에 의해 형성된 마당은 자연을 받아들이는 외부공간이며 자연과 조우하는 자기실현 공간이며, 이웃과 소통하는 매개공간으로서 다양한 가능성의 장소가 되고 있다. 텃밭이 되기도, 화단이 되기도, 담소를 위한 테이블과 의자가 놓이는 테라스가 되기도, 아이의 조그마한 놀이마당이 되기도, 낙동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한가로운 저녁의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발코니가 되기도 한다. 강변을 향한 마당은 저녁노을과 은은한 커피 향이 가득할 것 같다.



디온플레이스 - 복도의 재해석

디온플레이스는 부산의 중심부인 서면과 인접하고 금융의 메카로 새롭게 마련된 문현금융단지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디온플레이스의 새로움은 복도에 있다. 도심속 방향 대지를 갖고 공동주택을 계획하다 보면 대부분 기능적 복도와 중정을 갖게 된다. 그러나 설계자는 복도를 길로 재해석하고 있으며 길인 복도를 통하여 중정의 수직성을 수평성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복도는 각의 단위 세대를 잇는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각층별 다양한 구성을 가지며 모이기도 하고 흠여지기도 하며 중정 공간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곳에는 식물과 사람, 비와 바람, 햇볕과 그늘 등의 요소가 더해지며 계절의 변화, 사람 간의 우연한 만남을 유도하고 있다. 5개 층씩 개방된 복도는 테라스이기도 휴식공간이기도 하며 동시에 자연스럽게 어떤 집에 누가 사는지를 알게 해주는 공동체 공간이기도 하다. 도심으로 열린 복도와 중정은 건물의 허파가 되



- ① 디온플레이스 전경 ©윤준환
- ② 디온플레이스-길로써의 복도 ©윤준환
- ③ 베르나움-사이 영역 ©윤준환
- ④ 레지던스 엘가-각 세대별로 형성된 마당 ©윤준환
- ⑤ 레지던스 엘가-최상층 세대의 옥상 마당 ©윤준환

화하고 있고, 또한 건축물 입면 디자인에 있어 큰 모티브로 작용하며 공동 주택이 흔히 갖는 단조로운 입면에서 벗어나 생기를 불어 넣고 있다. 이러한 분절되며 생긴 공간은 사이 영역으로 내,외부 사이의 전이공간이나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에 놓인 매개공간으로의 의미만 아니라 건축 공간 전반으로 확장이 가능하게 한다. 사이 영역으로 면하는 두 매스의 코어(계단과 엘리베이터 등의 한 묶음)는 사용자들에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동 또는 같은 동의 이웃과 조우하고, 사이 영역의 조경공간은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한다. 사이 영역은 마을과 도시의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 요소이다. 골목의 평상이 그러하고 마을 어귀의 정자 등이 그러하다. 도시의 밀도가 높아지며 사이 영역의 존재는 희미해졌고, 공동체 의식 또한 저하되었다. 도시에서 잃어가던 사이 영역의 구축은 소형 공동주택의 공동체 형성의 실마리를 보여준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 주택은 우리나라 주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동이라는 의미는 함께 산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지만, 공동주택에서의 함께 산다는 의미는 산업적으로만 존재함으로써 공동주택이 가져야 할 공동체(共同體, Community)의 부족은 많은 사회적, 문화적 문제점을 유발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김용남 건축가의 세 작품은 잃어버렸던 마당을 통해, 복도의 새로운 시도로, 규정에 의하여 생긴 사이영역을 통하여 공동체의 복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새로운 공동체의 답을 보여주고 있다.

며 내부 공간 즉 단위세대의 쾌적성을 유지시켜주는 환경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

베르나움 - 사이 영역

베르나움은 해운대 신도시 상업지역 주위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밀집한 경사 대지에 있다. 지구단위계획상 8층 이상, 60m 이상의 입면은 2개 동으로 분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도시계획상 규정은 2개의 매스(건축물의 큰덩어리)를 만들게 하였고, 2개의 매스 사이에 생긴 공간은 불규칙한 형태로 깎아내며 산의 계곡처럼 형상

1) 공동 주택에 속하는 도시형 생활 주택 중 원룸형은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이 14㎡(약 4평) 이상 50㎡(약 15평) 이하인 주거 형태이다.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할 수 있으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포함된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이외에 일부를 숙박 용도로 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법적으로는 업무용 시설이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형태로 준주택이라고도 한다. 원룸형과 달리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다.

2) 김용남 동아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였고, 부산대학교 의학대학원 의료경영자 과정과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건축학 과를 졸업하였다. 공간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히고, 현재 (주)삼현도시종합건축사 사무소의 대표를 맡고 있다. 동의대학교 겸임교수, 인제대학교, 동아대학교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주요작품으로는 미즈웰산부인과, 락앤락레스토랑, 장유부성병원, 이비스호텔복합시설, 레지던스 라움, 김해대큰병원 등이 있다. 부산다운건축상 동상, 한국건축가협회 신인건축가상, 김해건축대상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대미술의 세계적 거장 이우환을 만나다

부산시립미술관

이우환 공간

(Space Lee Ufan)

현대미술의 세계적 거장 이우환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문을 열었다. 지난 4월 10일 부산시립미술관 내에 개관한 '이우환 공간(Space Lee Ufan)'이 바로 그곳으로, 특히 이우환 화백이 직접 설계하고 작품에서부터 전시 하나하나까지 그의 손길이 닿으면서 '이우환 공간'은 공간 자체로도 하나의 예술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우환 공간'은 이우환 화백의 이름을 붙인 국내 유일의 미술관이다. 2010년 개관한 일본 나오시마에 자리한 '이우환 미술관'에 이어 이우환 작가의 이름으로 지어진 두 번째 미술관으로 의미가 크다. '이우환 공간'이 부산에 세워진 데는 경남 함안이 고향이었던 이우환 화백이 중학교 시절을 부산에서 보낸 인연도 한 몫 했지만 세계적인 거장의 미술관을 부산에 유치함으로써 문화도시로서 발돋움하고자 한 부산시의 열정과 의지를 보고 이우환 선생이 수락하면서 우리나라 유일의 '이우환 공간'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우환 선생은 서울대학교 미대를 중퇴하고 지난 1956년 일본으로 건너간 후 사물에 존재감을 부여하고 사물과 인간 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일본의 전위예술인 모노하(物派)의 이론과 실천을 주도하며 국제무대에서 활동해왔다. 벨기에 왕립미술관,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 독일 베를린 국립미술관 등 세계 주요 미술관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을 가졌으며, 특히 지난 2011년에는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회고전 '이우환:무한의 제시'를 개최했고 2014년 베르사유 궁전에서 대규모 조각 전시를 가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우환 공간'은 당초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시민공원 내에 대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이우환 선생이 부산시립미술관 옆 고가도로의 병풍 역할을 자임하며 미술관 내 야외화장실 부지를 공간 입지로 선정하면서 기본설계부터 작품설치까지 직접 진행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세 차례 현장을 방문해 건물 높이 조정에서부터 내부벽체 이동, 마감자재 결정 등 공간 설계에서부터 작품 한점 한점에 대한 섬세한 설치작업까지 '이우환 공간'과 관련한 모든 것을 손수 디자인했다. 그래서일까, 지하 1층, 지상 2층(연면적 1400.83m) 규모로 건립된 '이우환 공간'은 외형적인 모습 역시 그의 작품세계처럼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다.



1층 전시관은 '물(物)과 언어', '관계항-지각과 현상' 등 조각작품 8점이, 2층 전시관은 점과 선을 이용한 독특한 화풍으로 유명한 '대화,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바람과 함께' 등 회화작품 1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야외 전시관에도 설치작품이 전시되어 있어 '이우환 공간'에 가면 이우환 화백의 1960년대 초기작부터 2015년 작품까지 총 20점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이우환 선생이 직접 설계한 천장과 조명, 작품이 조화를 이루면서 전시실 그 자체가 하나의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다가온다.

-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 매주 월요일 휴관, 금요일과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폐관 1시간 전까지 입장가능.
- 문의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art.busan.go.kr

월드뮤직 음악감상회 **공감** (共感)

“오늘은 열정의 나라 쿠바로 음악여행을 떠납니다. 쿠바는 아바네라(Habanera), 룸바(Rumba), 쏘(Sion), 맘보(Mambo), 차차차(Cha Cha Cha), 살사(Salsa), 볼레로(Bolero) 등 그야말로 리듬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기 앞서 잠시 영화 한 편 감상하실까요?”



지난 4월 15일 부산시민공원에 자리한 다솜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스크린 가득 영화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이 펼쳐지고 있다. 이날은 바로 월드뮤직 음악감상회가 열리는 날. 저녁 7시가 되면서 월드뮤직 음악동호회 '공감(共感)' 회원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다. 월드뮤직 해설가인 최정욱 씨가 이끄는 월드뮤직 음악동호회 '공감'은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둘째주 수요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열고 있는 월드뮤직 음악감상회 '테마가 있는 월드뮤직'에 참여하는 시민들로 자발적으로 결성되었다. 4월로 벌써 7회를 맞는 '테마가 있는 월드뮤직'에서는 그동안 파두와 켈틱음악을 시작으로 상송과 칸초네, 아리랑, 누에바 칸시온(라틴 아메리카의 사회 참여적인 노래의 장르 또는 운동), 아프리카 음악, 그리스 민속음악인 램베타카 등을 만나왔다. 5월에는 멕시코음악, 6월에는 집시음악과 플라멩고 음악으로 월드뮤직여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월드뮤직은 한마디로 삶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역사의 생명력과 제3세계 민족의 정서, 민중의 삶을 만날 수 있어 더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무한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클래식음악 애호가로 지내온 최정욱 씨는 10여년 전 우연한 기회에 월드뮤직의 매력에 빠지면서 지금은 월드뮤직 전도사로 월드뮤직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월드뮤직에 관련된 자료나 음원이 부족했던 때라 부지런히 발품을 팔며 자료를 찾아다녔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월드뮤직을 감상했다는 그는 몇 년전부터는 일반 시민들에게 월드뮤직의 매력을 전하기 위해 음악감상회를 시작, 5년 전부터 양산 통도사 인근 전통차집 '다요'에서 월드뮤직 감상회를 열었다. 최정욱 씨의 월드뮤직 사랑에 아내 이명순 씨도 함께 동참하면서 감상회 진행은 이명순 씨가 직접 챙기고 있다.

저녁 7시부터 진행되는 월드뮤직 음악감상회는 직장인을 위해서 본격적인 감상회는 7시 40분쯤 시작한다. 일찍 오는 회원들을 위해서는 그날 감상할 월드뮤직을 미리 들려주고 음악과 관련된 영화의 주요 장면을 상영한다. 감상회에 앞서 상세한 해설이 담긴 해설서와 그날 감상회에서 사용할 음악을 녹음한 CD를 자비로 들여 제작, 참석한 회원들에게 나눠준다. 감상회에 대한 입소문이 조금씩 퍼지면서 지금은 30~40명의 회원들이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최정욱 씨는 내년부터는 월 1회로 열고 있는 음악감상회를 주 1회로 늘이고 지역도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월드뮤직으로 만나고 싶다. "월드뮤직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세계인들과 정서적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월드뮤직을 알려나가고 싶다"는 최정욱 씨는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월드뮤직 페스티벌'을 부산에서 개최하고 싶다. 예전 최정욱 씨와 클래식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인연으로 월드뮤직 감상회를 찾게 되었다는 최경자 씨는 요즘 월드뮤직 듣는 맛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 역시 클래식 애호가이지만 클래식과는 다른 편안하면서도 가슴을 두드리는 월드뮤직의 새로운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다고 한다. "어린 시절 무심코 들었던 음악들이 알고보니 월드뮤직이더군요. 각 나라의 역사, 문화, 정서가 담긴 음악에 저의 추억까지 느낄 수 있으니 끌리지 않을 수 없겠죠." 음악감상회에 앞서 틀어주는 영화나 영상이 음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최경자 씨는 그리스 민속음악인 램베타카 편에서 만났던 영화 '그리스인 조르바'의 한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문의_ 월드뮤직 음악동호회 '공감(共感)'
(010-3853-6634, cafe.naver.com/yefeel)



두부와 콩나물

어린이
창작음악극

전래동요, 클래식, 무용,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어린이 창작음악극 두부와 콩나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5. 5. 16 | 토 1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권 일반 10,000원
어린이 5,000원 (만 4세~13세)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문의 홍보팀 051)607-3100(정기회원 20%할인) 공연과 051)607-6065



28_ 프리뷰
34_ 리뷰
36_ 프로그램 가이드
56_ 새로 나온 책
57_ 새로 나온 음반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1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학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마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엑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탈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스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한결아트홀(구, 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LIG아트홀 | 1544-3922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부산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문화나눔 콘서트 '행복한 5월'

5. 1 (금)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13 (수)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1 (목)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7 (수) 오후 7:30 북구문화빙상센터



지휘 정병휘

지휘 조우현

바이올린 박규림

해 직접 창립한 한-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역임하고 지난 2010년 북유럽 발트해 연안 10여 개국의 젊은 음악가들로 구성되어 유럽의 새로운 오케스트라로 급부상하고 있는 '발틱 유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지휘자로 발탁되어 클래식의 본 고장인 유럽에서의 활동 반경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27일은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가 출연, 금관악기의 풍부하면서도 화려한 선율을 감상할 수 있는 '매직 브라스' 무대가 펼쳐진다.

21일 영도문화예술회관을 찾아가는 부산시립합창단은 'Pop & 가요'라는 타이틀로 대중가요와 팝송, 동요 등 누구나 즐겨 부르는 대중적인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난다. 경북대학교 실용음악과 겸임교수, 매니아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는 객원지휘자 조우현의 지휘로, 애창팝송 'Love me tender, Desperado, The Rose, Bohemian Rhapsody', 애창가요 '거위의 꿈, 한계령, 마포 종점, 광화문 연가, 우리는' 등을 들려준다. MBC합창단 단장을 역임한 조우현은 그동안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 '선덕여왕', '원효' 음악감독, 뮤지컬 '카르멘시타' 작·편곡, 성남시립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 부천시립합창단, 서울시립합창단 객원지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문화회관 607-6065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시립예술단이 평소 부산문화회관을 찾기 힘든 지역민들을 위해 區 문화회관을 순회하는 문화나눔 콘서트 '행복한 5월' 무대가 펼쳐진다. 5월 1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흥겨운 민요한마당'을 시작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합창단이 동래문화회관과 금정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북구문화빙상센터에서 온 가족이 부담없이 편히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문화나눔 콘서트 '행복한 5월' 첫 무대는 5월 1일 동래문화회관에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흥겨운 민요한마당'으로 펼쳐진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이날 무대에서 가장 한국적인 음악으로 꼽히는 궁중음악 '수제전'을 시작으로 시조창 '평시조 청산리 벽계수야, 지름시조 청조야와 가야금중주 민요메들리 '아리랑, 밀양아리랑', 산조합주, 흥겨운 민요한마당 '동백타령, 신사철가', 사물놀이 등 신명넘치는 국악 한마당을 펼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5월 13일과 27일 금정문화회관과 북구문화빙상센터에서 클래식 향연을 펼친다. 우선 13일 '댄스 위드 미(Dance with me)'에서는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지휘자로 다양한 무대에 서온 객원지휘자 정병휘가 지휘하고 헤럴드음악콩쿠르 1등 없는 2등, 한국음악콩쿠르 대상, 서울종합예술학교 콩쿠르 1등, International Classic Music Summit Germany 참가 및 콩쿠르 2등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서울예술고등학교 2학년 박규림의 협연으로 모차르트 '후궁으로부터의 유괴' 서곡, 시벨리우스 '슬픈 왈츠 작품 44-1', 피아졸라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중 '봄', '여름', 코다이 '갈란타의 춤'을 들려준다. 현재 서울예고 오케스트라 전임지휘자로 활동 중인 객원지휘자 정병휘는 지난 1999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빈 대사 시절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문화적 친선 교류를 위

Preview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5월에 듣는 내 마음의 노래들

5.14(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조우현

박일롱밴드 리더 박일롱

부산시립합창단

대중의 사랑을 받고있는 애창곡으로 마련하는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5월에 듣는 내 마음의 노래들'이 5월 1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합창 음악계에서 참신한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지휘자 조우현과 백석대학교 실용음악과 박일롱 교수가 이끄는 열정의 밴드 '박일롱 밴드'를 초청, 가요와 팝, 동요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애창곡들을 다채로운 합창음악으로 들려준다.

청중과 소통하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힘써온 지휘자 조우현은 MBC합창단 단장을 역임하고 현재 명지전문대학교 실용음악과 외래교수, 경북대학교 실용음악과 겸임교수, 매니아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 음악감독(1984년), MBC 쇼 뮤지컬 음악감독(1999년), 뮤지컬 '선덕여왕' 음악감독(2009년), 뮤지컬 '원효' 음악감독(2011년)을 맡기도 한 조우현은 작·편곡에도 능해 뮤지컬 '카르멘시타' 작·편곡(1999년)을 맡기도 했다. 성남시립합창단(2007년), 고양시립합창단(2008년, 2009년), 부천시립합창단(2009년, 2010년), 서울시립합창단(2012년, 2013년) 객원지휘를 맡기도 한 조우현은 지난 1994년 MBC 연기대상 음악부문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드럼, 피커션 박일롱, 건반 이상인, 베이스기타 김상배, 일렉 & 어쿠스틱 기타 이윤용으로 구성된 박일롱 밴드는 그동안 MBC 쇼 뮤지컬 밴드, 서울시립합창단, 성남시립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 부천시립합창단, 파주시립합창단,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김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의 협연무대, 가수 남진, 주영리, 김수철, 김수희, 설운도, 유열, 김범수 등 유명 가수와의 협연무

대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났다.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 가요 '눈물 젖은 두만강'으로 화려한 막을 여는 이번 무대에서는 Love me tender, Desperado, The Rose, Bohemian Rhapsody, 거위의 꿈, 한계령, 마포 종점, 광화문연가를 들려주는 1부 '내 마음의 애창곡'에 이어 2부 '내 마음의 힐링곡'에서는 You Raise me up, 재즈 할레루야, Oh happy Day를, 3부 '내 마음의 추억곡'에서는 아름다운 노래들, 동요모음으로 아름다운 하모니와 즐거움이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입장료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2, 3108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 음악창작극 두부와 콩나물

5.16(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문화회관이 마련한 특별한 가족 선물 어린이 음악창작극 '두부와 콩나물'이 5월 1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어린이 전문 공연단체인 인터에듀아트르가 제작한 '두부와 콩나물'은 지난 2011년 경기문화재단의 우수예술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초연 시 전석 매진을 기록한 웰 메이드 음악극이다. 전래동화와 클래식, 무용,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예술장르가 어우러진 '두부와 콩나물'은 어린이 관객들에게 공연예술에 대한 참여와 흥미를 높여주고 예술적 감수성과 즐거움을 선사해준다.

특히 전래동화의 친근한 멜로디와 클래식 악기의 다양한 감성이 함께 만나 클래식을 처음 접하는 어린이들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무대로, 아이들에게는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의 선율을 알게 해주고, 어른들에게는 향수 어린 동심의 세계를 추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준다.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온 윤이네. 어느 비오는 날 두부와 콩나물을 팔기 위해 부모님이 집을 나서고 혼자 남겨진 윤이는 마루에 앉아 놀다 대문 앞에 떨어진 두부와 콩나물을 발견한다. 함께 놀자고 손짓하는 두부와 콩나물을 보며 깜짝 놀란 윤이는 재미있는 노래와 춤에 어느새 두부와 콩나물과 사이좋은 친구가 되고,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비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된다. 며칠 뒤 반가운 비가 내리자 윤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가 나간 문 앞으로 한발씩 다가가는데...

'두부와 콩나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한국적이면서도 일상적인 캐릭터인 두부와 콩나물이 등장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관객이 사진과 애니메이션을 통해 등장인물이 되는 쌍방향 무대장치로 어린이들에게 한발 더 친숙하게 다가간다.

입장료 일반 1만원, 어린이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607-6065, 607-3100

Preview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0회 정기연주회

마에스트로 리 신차오의 '라 발스'

5.22(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리 신차오



첼리스트 이일세

지난 4월 18일 서울 예술에의전당에서 열린 '2015 교향악축제'에 참가해 관객으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빈 왈츠의 우아함을 담은 라벨의 '라 발스'로 제510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천재적인 감각과 신선한 열정으로 감동을 주는 마에스트로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따뜻한 음색과 냉철하고 열정적인 음악성으로 주목받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수석 이일세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선율이 매력적인 모차르트 '신포니아 콘체르탄테'를 시작으로 강한 이국적 취향과 귀족적인 단아함이 돋보이는 랄로의 첼로협주곡, '관현악을 위한 무용시'로 불리는 라벨의 '라 발스'를 들려준다.

1부 무대의 시작은 원보가 분실되어 사보로만 전해지면서 진위여부를 두고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모차르트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내림마장조 K.297b', '신포니아 콘체르탄테'는 고전과 시대 널리 퍼졌던 음악양식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주자들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협주곡과 같으나 독주 악기군이 관현악과는 다른 주제를 연주한다는 점에서 협주곡과는 구분된다. 1778년 모차르트가 파리에 머물면서 그 당시 풍조에 자극받아 작곡한 이 곡은 18세기 말 파리 악단을 풍미했던 특수한 장르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준다.

2부 첫 곡은 첼리스트 이일세의 협연으로 랄로 '첼로협주곡 라단조'를 들려준다. 랄로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첼로협주곡은 1877년 벨기에 출신의 첼리스트 아돌프 피셔의 연주로 초연된 작품으로 첼로의 독주와 관현악의 반주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협연자 이일세는 14세 때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에 최연소로 입학, 전문연주자과

정(Diplom)과 최고연주자과정(Magister)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Julius Berger, Tsuyoshi Tsutsumi, 조영창, Boris Kuschnir, Alban Berg Quartet 등 세계 유명 연주자들을 사사하며 솔리스트와 실내악 전문 연주자로서의 기반을 단단히 다졌다. Sinfonietta Baden, Collegium Mozart Wien, 빈청소년교향악단, 유라시안필하모닉오케스트라 첼로수석, 경희챔버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오스트리아 빈 프라이너음악원과 구스타프 말러음악원 교수를 역임한 이일세는 현재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음악감독,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동의대학교 외래교수, Wiener Musik Seminar 교수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곡은 연주회 타이틀이기도 한 라벨 '라 발스'. 프랑스 작곡가 라벨이 스스로 '빈 왈츠의 예찬'이라 불렀던 '라 발스'는 1920년 12월 12일 관현악으로 먼저 초연된 후 1929년 5월 23일 파리 오페라극장에서 발레 초연이 이루어졌다. 빈 왈츠의 우아한 매력에 작곡가 자신의 독특한 상상력을 결합시킨 '라 발스'는 빈 왈츠보다 한결 변화무쌍한 음색과 리듬으로 20세기 새로운 왈츠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참신하며 독창적인 춤곡으로 평가받고 있다.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5, 3106

부산시립무용단 제72회 정기공연 오래된 미래

5.28 - 29(목-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현존하는 최고의 한국춤 명인들과 함께하는 부산시립무용단 제72회 정기공연 '오래된 미래'가 5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한국 전통춤과 창작춤의 본태를 만든 故 한성준 선생을 기리고 그가 남긴 춤의 본질과 정신을 탐색한 명인, 명무와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김진홍, 김명자, 김은경, 엄옥자, 김매자, 국수호, 배정혜, 홍경희 등 8명의 명인들과 부산시립무용단이 함께 전통춤의 전승과 창조를 통한 새로운 한국 춤의 비전을 제시한다.

한국 전통춤을 일군 故 한성준 선생과 그의 맥을 이어가는 계승자들의 삶과 흔적들을 더듬어보는 '1부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2부에서는 '전통의 계승과 창조'라는 주제로 명인 8명의 무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부산시무형문화재 제14호 동래한량무예능보유자이자 현재 김진홍전통춤보존회 예술감독으로 있는 김진홍은 삶의 희노애락이 담긴 '승무'를,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제97호 살풀이 춤 전수교육조교로 있는 김명자는 슬픔의 비탈을 넘어 지극한 몰아의 세계로 승화시키는 '살풀이춤', 부산시무형문화재 제10호 동래고무 예능보유자,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이사장으로 있는 김은경은 강태휴류 가야금산조에 춤을 얹어 섬세하면서도 아기자기한 멋이 넘치는 '부채산조', 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 승전무 보유자이자 부산대학교 명예예교수인 엄옥자는 여성의 자태에서 뿜어 나오는 생명력 넘치는 춤사위로 흥과 멋을 선사하는 '원향지무', (사)창무예술원 이사장으로 있는 김매자는 인생의 길을 되새겨보는 작품으로 삶에 관한 진지한 동작의 진수를 보여주는 '삶', 디딤무용단 예술감독으로 있는 국수호는 선이 굵고 호쾌하며 섬세한 듯 웅장한 '남무', 전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을 역임한 배정혜는 장고를 메고 태평가와 경복궁타령에 맞춰 어깨춤이 저절로나는 '풍류장고',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인 홍경희는 세계속

의 역동적인 부산시립무용단으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담은 '천지화'를, 부산시립무용단은 생명의 에너지가 용솨음치는 역동성을 연주하는 3단 '오고무'와 정재와 민속 무용의 어우러짐이 일품인 '동래고무'를 선보인다.

마지막 무대 '에필로그'에서는 우리 전통춤을 깨끗하게 지켜온 예인들이 한 사람씩 무대에 등장해 전승과 창조라는 한국춤의 화두를 던지고 여기에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이 화답하듯 새로운 춤사위를 선보이면서 미래 한국 창작춤의 기대와 희망을 춤사위로 표현한다.

- 구성, 예술감독/홍경희(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 극작 및 연출/유희성(전 서울시뮤지컬단 단장)
- 음악감독/강상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입장료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54, 3107

Preview

호국보훈의 달 기념 부산시립합창단 제157회 정기연주회 베르디의 '레퀴엠'

6.4(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매년 미사와 레퀴엠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해온 부산시립합창단이 올리는 베르디의 '레퀴엠'으로 영혼의 울림을 들려준다.

베르디 최고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레퀴엠'은 그가 존경해마지 않았던 이탈리아 대문호 알레산드로 만초니의 서거 1주년을 추모하는 무대를 위해 작곡된 곡으로, 특히 마지막 곡인 '리베라 메(Libera me)'는 앞서 서거했던 19세기 이탈리아 오페라의 선구자이자 베르디에게 영향을 끼쳤던 선배 작곡가였던 조아키노 로시니를 추모하기 위해 작곡된 곡으로 알려져 있다. 작가 알렝 뒤오로부터 '진한 감동을 주는 한편의 멜로드라마로, 마치 망자(亡者)의 오페라처럼 보인다'라는 평을 받은 베르디 '레퀴엠'은 장대한 규모와 화려한 작풍, 강렬한 여조와 풍부한 노래들로, 죽음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섭리와 마주한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강렬하게 전달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창원시립합창단 음악감독으로 있는 객원지휘자 윤의중이 지휘하고 부산시립합창단과 창원시립합창단, 소프라노 김유섬, 메조소프라노 추희명, 테너 김충희, 바리톤 최중우가 출연한다. 뛰어난 음악성과 세밀하면서도 정확한 지휘로 유명한 차세대 지휘자 윤의중은 서울대학교 기악과와 미국 신시내티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합창지휘를 전공하고 2005년 미네폴리스에서 열린 International Boy's & Men's Choir Festival에서 한국 최초로 객원지휘자로 초청받아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500여 명의 연합합창단을 지휘했으며, 2006년 덴마크 Heming시의 Men's & Boy's 합창단 객원지휘자로 초청받기도 했다.

독창자로 출연하는 소프라노 김유섬은 이태리 페르니의 베르디극장에서 오페라 '라보엠'으로 데뷔한 후 오페라 주역 및 솔리스트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으며 현재 국립창원대학교 교수로 있다. 드라마틱한 감성의 메조소프라노 추희명은 지난

2000년 세종문화회관 오페라 '카르멘'에 공개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 되어 국내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한 후 국내외 무대를 통해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왔으며 현재 안양대학교 교수로 있다.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테너 김충희는 독일 라보체 가곡 콩쿠르, 독일 뉘른베르크 한스 작스 콩쿠르, 독일 파싸우 국제콩쿠르, 스위스 오페라 카르멘 콩쿠르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지난 2014년에는 독일 튜링겐 주 최고의 예술가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세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리톤 최중우는 그동안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세계 무대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입장료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2, 3108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9회 정기연주회 ‘봄의 제전’

박진홍 음악평론가



기다리던 봄이 이제 와 왔음을 느끼는 따스했던 4월 15일 저녁,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봄의 제전’이 무대 위에 올랐다.

전반부는 사랑에 빠진 남녀의 감정을 서정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오페라 아리아의 무대를 소프라노 박현정과 테너 김지호의 노래로 만날 수 있었다. 두 성악가는 부산을 대표하는 실력 있는 연주자로 그 동안의 활동에서도 늘 멋진 연주를 들려주었기에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호흡이 무척이나 기대되었다.

박현정은 슈트라우스의 ‘체칠리 작품 27-2’을 노래하며 드라마틱한 음색과 연기력을 보여 주었다. 푸치니의 ‘라보엠’ 중 ‘내 이름은 미미’와 구노의 ‘로미오와 줄리엣’ 중 ‘나는 꿈 속에 살고 싶어요’의 연주에서는 극중 배역에 빙의된 듯 펼쳐지는 표정과 몸짓, 그리고 따뜻한 음색을 들려주어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김지호는 푸치니의 ‘마농 레스코’ 중

‘이런 미인 본 적 없어’를 맑고 단단한 소리로 노래했고, 칠레아의 ‘아드리아나 르쿠브리르’ 중 ‘너무나 아름다운 당신’의 연주에서는 힘 있고 호소력 짙은 표현력을 선보였다. 그리고 비제의 ‘카르멘’ 중 ‘네가 던진 이 꽃은’을 연주할 때는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마음을 담은 듯 음 하나하나에 충실히 노래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전반부 마지막 작품으로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인테르메조’가 연주되었다. 다이내믹은 더욱 살리면서 서정성은 높여 주어 보다 입체감 있고 간결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후반부에는 이날의 주 연주 작품인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이 연주되었다. 처녀를 제물로 바쳤던 원시 종교 의식을 그려 낸 이 작품은 스트라빈스키의 3대 발레 작품 중 하나이다. 작곡가의 작품 인생에 커다란 전환기를 알렸던 작품으로 강렬한 리듬과 불협화음으로 당시 음악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스트라빈스키 자신이 요구한 바대로 얼마나 정확하게 악보를 지켜 연주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또한 초연 당시보다 자극적인 사운드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원시의 강렬함을 선사하기 위해서는 더욱 풍부하고 날카로운 음향과 정확하면서도 극단적인 대비를 보여 주는 리듬이 구사되어야 한다.

마에스트로 리신차오와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깊이 있게 고려하여 음악을 해석하고 만들어 갔다. 정확하면서도 날카로운 리듬으로 군더더기 없는 명료함을 만들었고, 굴곡 있는 다이내믹과 안배된 악기 간 밸런스는 풍성한 입체감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스트라빈스키가 만들어 내고자 했던 원시의 강인한 생명력과 잔인한 축제의 강렬함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연주였다.

준비된 프로그램이 끝나자 대극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객석을 가득 채우는 박수로 감동적이었던 연주에 찬사를 보냈다. 이에 지휘자 리신차오는 일년 전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이들을 기억하고 안식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중 ‘님로드’를 연주했다.

수수께끼 변주곡은 엘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이다. 14개의 변주는 작곡가의 지인들이 가진 특징을 음악적으로 묘사하였는데, ‘님로드’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J.예거를 비유한 것이다. 아다지오의 느리고 엄숙한 음악을 통해 관객들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희생자들에 대한 숙연한 기도의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 음이 연주되고 머리 위로 높이 울렸던 리신차오의 바통은 매우 느리게 원을 그리며 내려졌다. 마지막 소리까지 허공으로 흩어지고 난 후, 연주자와 관객 모두 조용하고 차분하게 공연장을 떠났다.

연기를 이끌어내는 힘, 연출

김남석 부경대학교 교수, 연극평론가



2015년 제 33회 부산연극제에서 가장 돋보인 작품은 ‘사초’였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분석될 수 있을 것 같다. 정갈한 희곡이 기본 요인으로 꼽힐 수 있을 것이고,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도 그 이유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코러스의 차용이나 세련된 무대 공간 등도 물론 그 이유로 거론될 수 있다.

실제로 ‘사초’의 희곡은 ‘사극’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라는 기본적 덕목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후반부까지 극적 긴장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여기에 주요 배역을 맡은

배우들이 안정된 연기를 펼치면서, ‘연산’/‘유자광’/‘사관’(김정혁)의 대립 구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연산의 연기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언뜻 보면 연산의 역할은 평면적으로 보일 수 있다. 폭군의 이미지는 단일한 성향을 드러내기만 하면 손쉽게 무대 위에서 구현될 수 있는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연산의 캐릭터는 복잡한 층위를 함축하게 마련이므로, 겉으로 보는 것처럼 이 역할을 손쉽게 구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배우 김세진은 이 점에서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그로 인해 유자광/사관의 대립도 가열차 질 수 있었다.

코러스의 활용은 이 작품의 명과 암을 갈랐다. 오프닝 장면에서 선보인 ‘세초연(洗草宴)’ 코러스는 전체 작품의 이미지를 격상시킬 정도로 효과적이었다. 펠릭스는 종이(한지)의 움직임은 이번 연극제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기도 했던 공간의 활용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꼽힐 수 있겠다. 두 개의 무대로 벌려진 공간에서 한 쪽 공간과 다른 한 쪽 공간이 이루는 기묘한 대립은 이 세초연으로 그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즉, 이 작품에서 코러스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준 장면이었다. 다만 그 이후의 코러스는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지는 못했다. 코러스들은 작품을 보완하고 이야기를 메웠지만, 어색하거나 부조화스러운 대목도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단조로울 수 있는 사건진행을 입체화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전체 서사와 다소 비틀리는 측면도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추후 재공연에서는 이 점을 보완하면 좋을 듯하다.

무대 배치는 연출가의 기본 안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적 표식이다. 무대 공간을 어떻게 채우고 혹은 어떻게 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관객들에게는 하나의 시각적 이미지로 응축되게 마련인데, ‘사초’의 이미지는 두 개의 단과 그 사이를 메우는 배우들의 연기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참가작들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웅기종기 모여 있는 인상을 주었다면, 〈사초〉가 이러한 인상에서 가장 비껴 설 수 있었던 것도 연기 공간의 분할과 효과적 재배치 때문이었다.

연출(演出)의 옛 명칭은 도연(導演)이었다. 연극 혹은 영화에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연기를 이끌어내어 그 표현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임무를 맡게 된다. 즉 연기(演)를 이끌어 내는(出) 사람(방법), 혹은 연기(演)를 인도(導)하는 사람(방법)을 뜻하는 이러한 말들은 ‘사초’에 잘 들어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희곡 내에 담긴 밑그림과, 배우 안에 담긴 잠재력, 무대 위에 떠도는 공간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고(出) 그것들을 하나의 입체로 인도했기(導) 때문이다. 누리예의 강성우는 이러한 점에서 종합적인 연출력을 선보인 효율적인 연출자였다고 할 수 있겠다.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Welcome, Shakespeare

일 시 | 5월 1일(금)~10일(일) 부산문화회관 대·중·소극장,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부산예술회관, 용천지탈소극장, 공간소극장, 나다소극장, 디코소극장, 수영문화원 바다갤러리, 광안리 야외무대

입장료 | Concept 1층 2만 5천원, 2층 2만원
Go World Festival, Dynamic Fringe
균일 1만 5천원 / 전 작품 관람권 12만원
문의 | 부산국제연극제 802-8003
www.bipaf.org



매년 새로운 컨셉으로 세계 각국의 연극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제작, 문제작을 선보이는 부산국제연극제 2015년 무대.

올해로 12회를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체코, 미국, 한국 등 6개국 6개 우수 작품을 선보이는 'Concept'과 올해 8월에 열리는 영국 에든버러축제에 참가할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경연 프로그램 'Go World

Festival', 공연단체의 참여기회 확대와 더욱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Dynamic Fringe' 등 다양한 작품들이 관객들을 찾는다. 연극의 고전인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통해 연극본연의 의미를 느껴보기 위한 올해의 컨셉은 'Welcome, Shakespeare'. 시대를 넘어서 국가와 언어를 초월하는 연극의 힘을 온전히 보여주는 작가 셰익스피어를 통해 그의 희극이 어떤 형태로 변주되어 세계 각국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 극단 디퓨전 '말괄량이 길들이기'
[개막작, Concept]

1일(금) 오후 7:30, 2일(토) 오후 5:00 **중극장**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중에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비극들과 역사적 작품들이지만 셰익스피어가 그 당시 사회를 풍자하며 모두에게 웃음을 주는 가벼운 희극을 썼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코메디아 델 아르테 (Commedia dell'Arte,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



에 이탈리아에서 유행한 가면 희극'라는 전통적 연극 양식에 기초해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는 프랑스 극단 디퓨전은 기발한 도입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해체되는 무대 장치를 통해 셰익스피어 희극을 새롭게 해석한다.

한국 연극공동체 DIC '맥베스, 그는 잠을 죽였다' [Dynamic Fringe]

2일(토) 오후 8:00, 3일(일) 오후 5:00, 4일(월) 오후 8:00, 5일(화) 오후 5:00, 8:00 **소극장**



장대에 걸린 맥베스의 머리가 무대에 자리 잡고 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맥베스,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를 각색한 '맥베스, 그는 잠을 죽였다'는 웅장한 장군으로 칭송받았지만 주변의 감언이설과 엿나간 권력욕으로 비극을 자초했던 맥베스를 통해 권좌를 둘러싼 인간의 탐욕과 희망을 그린 작품이다.

러시아 발틱 하우스 '맥베스' [Concept]

4일(월)~6일(수) 오후 7:30 **대극장**



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권력, 권력에 대한 갈망은 관계가 끝났을 때 오는 공허함을 채운다. 그를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정복하는 것, 그것 뿐이다. 그는 이 비극 속에서 불행한 존재이다. 유럽의 유명감독 펠리시앵 감독의 러시아 초연작으로, 남녀의 은밀한 관계에서 바라본 또 다른 '맥베스'를 만날 수 있다.

2015년 부산연극제 대상 수상작 극단 누리에 '사초' [축하공연]

4일(월) 오후 7:30, 5일(화) 오후 5:00 **중극장**

축하공연으로 무대에 오르는 2015 제33회 부산연극제 대상 수상작 극단 누리에 '사초'. 연산군 4년(1498년)에 발생했던 무오사화(戊午士禍)를 소재로, 임금의 칙령과 교시를 기록하던 예문관 사관들의 이야기를 그린 창작극으로, 왕이라도 열람할 수 없었던 '사초'를 지켜내기 위한 사관들의 이야기가 역사적 배경과 어우러져 묵직하게 그려진다.

- 작/김문홍
- 연출/강성우

한국 극단 목화 '템페스트' [Concept]

7일(목)~9일(토) 오후 7:30 **중극장**

연출가 오태석이 세 번째로 선택한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와 삼국유사의 '가락국기'가 만나 목화만이 선보일 수 있는 '템페스트'로 태어났다. 한국연극의 거장 오태석 특유의 연출력과 백중놀이, 만담, 씨름극 등이 어우러져 볼거리의 향연이 펼쳐진다.



한국 극단 진일모 '바보행릿' [Dynamic Fringe]

7일(목)~8일(금) 오후 8:00, 9일(토) 오후 5:00, 8:00 **소극장**

시대에 따라 다양한 변주를 거듭해온 '행릿'. 이번 무대에서는故 노무현 대통령이 죽은 선왕으로 등장한다. 3류 잡지사 기자 총철은 밤늦게 데스크로부터 부당하게 기사 수정 지시를 받는다. 간신히 잠든 그는 꿈속에서 정신병원에 갇히고, 또 꿈속에서 노무현이 나타나 '나를 잊지 말라고' 한다. 강박증에 시달리던



주인공은 스스로 노 대통령이 되어 현실의 지배자 병원장과 마지막 일전을 벌인다.

이탈리아 Teatro Tascabile Di Bergamo '로미오와 줄리엣' [폐막작, Concept]

9일(토)~10일(일) 오후 5:00 **대극장**

폐막작인 이탈리아 Teatro Tascabile Di Bergamo '로미오와 줄리엣'은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을 에로티시즘과 폭력성에 대한 이야기로 새롭게 재해석해 비극, 사랑, 광기, 죽음이 융합된 이탈리아 비극을 선사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2015 평화통일콘서트

일 시 | 5월 11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
866-6363



세계평화와 한민족 통일의 염원을 담은 시민과 함께하는 '2015 평화통일콘서트'.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평화통일 콘서트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들과 부산시민, 부산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무대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고문 및 음악감독을 역임한 지휘자 광승이 지휘하는 United Korea Orchestra(U.K.O)와 테너 이정원, 소프라노 박은주, 바이올리니스트 신상준, 아코디언 연주자 김청송, 시아모중창단과 연합합창단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스페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을 시작으로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더욱 깊어진 통일에 대한 염원을 음악에 담아 들려준다.

제49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11일~12일 월-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부산피아노듀오협회 010-8524-7913,
010-9372-5432



11일 심정자, 성민주 피아노 듀오 연주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Purchase) 석사 및 Artist Diploma,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Doctor of Musical Arts를 졸업하고 독주회 및 초청

연주회, 독주회 반주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심정자와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과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연주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정을 졸업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2013 부산연주인 시리즈, 금정문화회관 기획공연 '성민주와 친구들', 슈베르트 연가곡 '겨울나그네' 전국연주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온 피아니스트 성민주의 듀오 무대.

[프로그램]

리차드 로드니 베틀/Four Piece Suite
생상/플로네이즈 작품 77
브람스/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작품 34b

12일 피아노 듀오의 밤

부산피아노듀오협회 회원들이 펼치는 피아노 듀오의 밤.

[프로그램]

모차르트/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라장조 K.448/375a

윌리엄 볼컴/The Garden of Eden

라흐마니노프/교향적 무곡 작품 45

라벨/어미 거위

비제/카르멘 판타지

• 연주/박근우 & 김혜빈, 권혜진 & 김지현

김문경 & 김영실, 최민경 & 임효진

이아영 & 조미혜, 양정은 & 민유승

강지영 & 박선미

부산시민을 위한 오페라 감상 특강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

일 시 | 5월 11일(월), 18일(월) 오후 2:00 **국제회의장**

입장료 | 회당 1만원(10회권 수강자 및 정기회원 8만원)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2~4

관객은 미처 알지 못했던 무대 속 이야기를 통해 오페라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무대로, 5월에는 소프라노 윤선기(11일)와 테너 김지호(18일)가 출연한다.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Trossingen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독일 ZAV 국영 에이전시 소속가수로 있는 소프라노 윤선기는 오페라 '박쥐'를 통해 오페라를 주제로 관객과 소통하며, 경성대학교와 독일 쾰른국립음대, 러시아 마그니타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김지호는 오페라 '투란도트'와 '팔리아치'를 중심으로 자신이 직접 오페라 무대에 섰던 경험들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2015 제29회 부산청소년연극제

일 시 | 5월 11일(월)~22일(금) 오후 4:00,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부산지역 12개 고등학교 연극반들이 참가하는 제29회 부산청소년연극제.

[일정]

11일 학산여자고등학교 '종이비행기'

12일 경일고등학교 '택시드림'

13일 해강고등학교 '죽은시인의 사회'

14일 부산정보고등학교 '죽은시인의 사회'

15일 화명고등학교 '우리음내'

16일 경남고등학교 '방황하는 별들'

17일 부산중앙고등학교 '마술가게'

18일 반여고등학교 '김치국씨 환장하다'

19일 한국과학영재학교 '볼타는 별들'

20일 만덕고등학교 '꿈꾸리기'

21일 문현여자고등학교 '아름다운 시인'

22일 부산관광고등학교 '도로서의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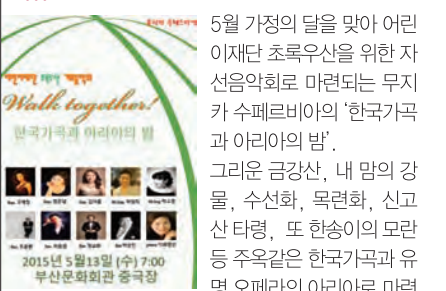
어린이재단 초록우산을 위한 자선음악회 Walk together!! 한국가곡과 아리아의 밤

일 시 | 5월 13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조윤희 010-8455-2383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재단 초록우산을 위한 자선음악회로 마련되는 무지카 스페르비아의 '한국가곡과 아리아의 밤'.



그리운 금강산, 내 맘의 강물, 수선화, 목련화, 신교산 타령, 또 한송이의 모란 등 주옥같은 한국가곡과 유명 오페라의 아리아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의 수익금은 전액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게 전달된다.

• 소프라노/고예정, 정은영, 김아름

• 메조 소프라노/박소연, 한현미

• 테너/조윤희, 하동권

• 바리톤/정승화

• 베이스/박상진

• 피아노/이화영선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5월에 듣는 내 마음의 노래들

일 시 | 5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2, 3108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애창곡으로 마련하는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5월에 듣는 내 마음의 노래들'. 이번 무대에서는 합창 음악의 참신한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지휘자 조우현과 백석대학교 실용음악과 박일룡 교수가 이끄는 열정의 밴드 '박일룡 밴드'를 초청, 가요와 팝, 동요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애창곡들을 다채로운 합창음악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오프닝/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 가요 '눈물 젖은 두만강'
내 마음의 애창곡/Love me tender, Desperado, The Rose, Bohemian Rhapsody, 거위의 꿈, 한계령, 마포중점, 광화문연가
내 마음의 힐링곡/You Raise me up, 재즈 할레루야, Oh Happy Day
내 마음의 추억곡/아름다운 노래들, 동요모음
• 객원지휘/조우현
• 객원연주/박일룡 밴드

가보둬 선교오페라단 제2회 정기연주회 새터민 선교를 위한 악극 '그 길에 목숨을 걸다'

일 시 | 5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서명보 010-2567-3994



가보둬 선교오페라단이 새터민 선교를 위해 제작한 찬양과 연극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식의 악극 '그 길에 목숨을 걸다'. 이 작품은 북한과 중국에서 살다가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오던 한 가족이 사기꾼 브로커를 만나면서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실화를 그린 작품이다.

[프로그램]
• 단장/서명보
• 출연/소프라노 장은영, 이영화, 정혜리, 한인숙, 이은미, 메조소프라노 성미진, 테너 서명보, 바리톤 윤봉원, 베이스 이철훈, 바이올리니스트 금성빈, 첼리스트 성민경, 배우 성주원, 박지현, 임희선, 하유나
• 피아노/이은정, 최혜련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 음악창작극 '두부와 콩나물'

일 시 | 5월 16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어린이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5, 607-3100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문화회관이 마련한 특별한 가족 선물 어린이 음악창작극 '두부와 콩나물'. 어린이 전문 공연단체인 인터에듀아트가 제작한 '두부와 콩나물'은 지난 2011년 경기문화재단의 우수예술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초연 당시 전석 매진을 기록한 웰 메이드 음악극으로, 전래동화와 클래식, 무용,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예술장르가 어우러져 어린이 관객들에게 공연예술에 대한 참여와 흥미를 높여주고 예술적 감수성과 즐거움을 선사해준다.



제39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일 시 | 5월 15일-16일 금-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010-6565-3930

부산지역 피아니스트 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의 39번째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15일 피아니스트 최진현 독주회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러시아 마그니타 고르스크 글린카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최진현의 무대.
최진현은 부산음악교육위원회 콩쿠르 3위, K.S.M.E. 전국콩쿠르 금상, 부산음악협회 콩쿠르 1위, 음악춘추 우수신인 데뷔연주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우수신인 콩쿠르 2위, 부산피아노듀엣



회 콩쿠르 1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쇼팽/24 프렐류드 작품 28
스크라빈/피아노 소나타 작품 23 올림바단조

16일 솔로와 듀오의 밤-하나, 그리고 둘
피아니스트 정아연, 윤민영, 김다정, 최혜련, 송지은, 박정난, 윤희경, 최지은, 신주옥이 마련하는 솔로와 듀오의 밤.
[프로그램]
리스트/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중 왈츠 드뷔시/판화 중 '탑', '비오는 저녁'
라흐마니노프/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2번 중 '타란텔라'

R.베넷/Four Pice Suit 중 Samba Triste, Ragtime Waltz, Finale
브람스/소나타 바단조 작품 34b 중 '스케르초'
• 솔로연주/정아연, 윤민영, 김다정
• 듀오연주/최혜련 & 송지은, 박정난 & 윤희경
최지은 & 신주옥

2015 부산신인음악회

일 시 | 5월 17일 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음악협회 634-1295

부산지역 음악계를 이끌어갈 유망 음악도들의 등용문 부산음악협회 2015년 부산신인음악회. 부산음악협회 50주년을 맞아 새롭게 마련한 부산신인음악회는 부산지역 대학 졸업생들 중 장래가 촉망되는 예비연주자들의 본격적인 예술활동을 위한 디딤돌로, 부산 클래식음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동의대학교 윤상운 교수가 지휘하는 (사)인코리아관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2014년 부산, 경남 지역 7개 음악대학 졸업생 중 선발된 8명의 우수연주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 출연/신지수(경성대학교, 피아노), 박정우(동의대학교, 색소폰), 강주희(동아대학교, 성악), 이소영(신라대학교, 피아노), 최인규(고신대학교, 클라리넷), 이주민(부산대학교, 성악), 박정은(부산대학교, 바이올린), 박수민(인제대학교, 피아노)

전장수 클래식기타 독주회

일 시 | 5월 17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브라보컴 02-3463-2468
We Music 010-6416-5482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이성우 사사)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한국인 최초로 예일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클래식 기타를 공부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클래식 기타리스트 전장수 독주회.

한국인 기타리스트로서는 처음으로 뉴욕 카네기 홀에서 독주회를 가진 전장수는 그동안 국내외 교향악단과의 협연, 초청연주회, 듀오무대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지난 2013년에는 한국기타협회에서 수여하는 한국기타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프로그램]
J. 다울랜드/환타지 제7번
바흐(벤자민 버더리 편곡)/사콘느 BWV. 1004
피아졸라/탱고의 역사
바흐/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6번 BWV. 1051 등

동의피아노소사이어티 제11회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20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동의피아노소사이어티 010-2252-3010



부산에서 교육과 연주활동을 하는 동의대학교 음악과 졸업생,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동의피아노소사이어티의 제11회 정기연주회. 동의피아노 소사이어티는 그동안 정통 피아노 음악과 다양한 장르의 피아노 음악을 연주, 발표하여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와 아울러 대중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프로그램]
스크라빈/소나타 제4번 올림바단조 작품 30
포레/녹턴 제6번 내림라장조 작품 63
브람스/16개의 왈츠 작품 39
생상/죽음의 무도 작품 40 등
• 연주/서주옥, 서영환, 김미현, 김성희, 이은정, 최윤경, 김아영, 박정난, 박희정, 조은주, 노지영, 임주아, 양광기, 김민자, 박소연

아모로제와 함께하는 봄의 향기

일 시 | 5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 의 | 아모로제성악연구회 010-3376-2246
010-3868-2808

부산의 촉망받는 성악가들로 구성된 후 지난 2012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두 차례 정기연주회와 협연무대, 아시아오페라단 초청 싱가포르, 캄보디아 연주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아모로제 성악연구회가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와 함께 마련하는 풍성한 봄의 향연.

[프로그램]
• 지휘/백진현
• 연주/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
• 소프라노/정태미, 이현정, 구민영, 이지은
• 테너/김희정, 양승업
• 바리톤/시영민
• 작곡/오세일
• 바순 협연/김나경



제11회 청소년, 일반을 위한 박헌주 Wings Dance Company 공연

일 시 | 5월 20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예약시 50% 할인)
문 의 | 박헌주 010-4552-9605

어렵게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못한 발레를 쉽고 재미있게 즐기고 청소년과 일반인들에게 발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시도를 해온 박헌주 Wings Dance Company의 11번째 무대.
[프로그램]
The Ballet Movement(안무/박헌주)
'리바아데레' 중에서(재구성/박헌주, 이화성)
Black&White(현재와 미래)(안무/박헌주)
그리고, 우리, 다시(And So We Meet Again)
(안무/박헌주, 강용기)



부산예술고등학교 제28회 음악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21일 목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예술고등학교 514-1232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음악도들이 그동안의 음악수업을 되돌아보며 마련하는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쇼팽/발라드 작품 23 제1번
이가영/Tang de Paraiso
엘가/첼로협주곡 마단조 작품 85
멘델스존/교향곡 제3번 작품 56 등
• 합창지휘/김성배
• 관현악지휘/오창록
• 출연/피아노 김주영, 백진주, 김시우, 박찬규, 이성진(이상 3학년), 송인수(2학년), 바이올린 신효은(3학년), 첼로 김재은, 강민지(3학년), 오보에 노지연(3학년), 소프라노 강수연(3학년)

<바다사랑> 부산음악사랑회 제9회 정기연주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일 시 | 5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음악사랑회 010-6428-7019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회원의 연주 활동과 음악행사에 적극 참여해 온 부산음악사랑회의 9번째 정기연주회.

음악애호가인 정희원과 전문연주자인 전문회원 등 약 80여 명으로 구성된 부산음악사랑회는 지난 2005년 7월 창립된 후 지금까지 40여 차례 크고 작은 연주회를 개최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한국가곡과 민요, 오페라 아리아로 꾸며진다.
• 출연/소프라노 강희주, 박정희, 이승자, 곽청자, 테너 김동현, 장철남, 정량부, 김명일, 바리톤 한성권, 배태군, 베이스 정광덕
• 협연/무지카비바 앙상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0회 정기연주회 마에스트로 리 신차오의 '라 발스'

일 시 | 5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5, 3106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빈 왈츠의 우아함을 담은 라벨의 '라 발스'로 마련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510회 정기연주회 마에스트로 리 신차오의 '라 발스'. 천재적인 감각과 신선한 열정으로 감동을 주는 마에스트로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따뜻한 음색과 냉철하고 열정적인 음악성으로 주목받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수석 이일세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선율이 매력적인 모차르트 '신포니아 콘체르탄테'를 시작으로 강한 이국적 취향과 귀족적인 단아함이 돋보이는 할로의 첼로협주곡, '관현악을 위한 무용시라 불리는 라벨의 '라 발스'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신포니아 콘체르탄테 내림나장조 K.297b
 할로/첼로협주곡 라단조
 라벨/라 발스
 • 지휘/리 신차오(수석지휘자)
 • 협연/첼리스트 이일세(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수석)

창작합창21 제10회 정기작품 발표회 음악에 길을 묻다Ⅵ

일 시 | 5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조혜선 010-8501-5117

합창음악의 연구와 창작, 발표를 통해 대중과 함께 하는 창작합창 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창작합창 21의 제10회 정기작품 발표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창작가곡과 여성중창, 남성중창, 혼성합창 등 다양한 형태의 합창곡으로 5월의 아름다운 밤을 선사한다.

- 작곡/최상화, 황장수, 김중욱, 정수란, 김종태, 진소영, 조혜선, 권태우, 윤소정, 김수진, 강영진, 임지연
- 출연/아르모니아 합창단(지휘/이영성, 반주/오채영), 소프라노 이민희, 비리톤 채범석, 피아노 김성희



KNN 창사 20주년 & 광복 70주년 기념 The Classic 경남

일 시 | 5월 23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 의 | KNN 055-283-0504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시립교향악단(BSO)과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 대한민국 최고의 드라마틱 테너 신동원, 이 시대 프리마돈나 김유섬, 그리고 하모니카로 세계를 제패한 박종성의 열정적인 무대를 만날 수 있는 The Classic 경남.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발레모음곡 '백조의 호수' 중 '스페인 춤' 브루흐/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작품 26
 푸치니/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도니제티/오페라 '루치아' 중 '깊은 침묵은 밤을 덮는다'
 등 수곡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악과 양악의 어울림 '아리랑, 애 아리랑'

일 시 | 5월 27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6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국악과 양악의 어울림축제 '아리랑, 애 아리랑'. 국악계의 프리마돈나 소리꾼 오정해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지휘자 홍희철이 이끄는 부산 유일의 민간 국악단체인 부산국악오케스트라와 전체 전

자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헝가리 출신 피아니스트 에르노 페어, 일본에서 활동 중인 비파연주자 엽위양, 사쿠라, 그리고 소프라노 남순천, 윤선기, 비리톤 김창돈, 오세민이 출연,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홍희철 • 연주/부산국악오케스트라
- 해설·소리/오정해 • 피아노/에르노 페어
- 전자바이올린/유진박 • 비파/엽위양, 사쿠라
- 소프라노/남순천, 윤선기
- 비리톤/김창돈, 오세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0회 정기연주회 김범수 제4대 수석지휘자 취임연주 '비전 & 도약'

일 시 | 5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6, 3105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4대 수석지휘자로 취임한 지휘자 김범수 취임연주회로 마련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0회 정기연주회 '비전&도약'. 특히 이번 무대는 창단 20주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도약의 원년 2015년을 맞아 새롭게 시작하는 수석지휘자와 신규단원, 기존 단원들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시작과 힘찬 도약의 기운으로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한다.

지휘자 겸 바이올린 연주자인 김범수는 경북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뒤셀도르프 슈만음대(Diplom), 에센 폴크방 음대(KammerExamen)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한 후 카셀시립음대 오케스트라 지휘과, 에센 폴크방 음대 오케스트라 지휘과를 졸업하고 그동안 객원 지휘자로 다양한 무대에 서었다. 김범수

는 현재 아르도르필하모니아, 경북대학교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로도 활동 중이다. 첼로 협연을 맡은 김두민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후 독일 하노버국립음대에서 디플롬과정과 쾰른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수료했다. 그동안 한국과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솔리스트와 실내악 연주자로 꾸준한 활동을 펼쳐온 김두민은 2000년부터 안네소피무터재단의 후원을 받아 2011년 결성된 Mutter's Virtuosi 앙상블의 멤버로 유럽, 중국, 대만,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순회공연을 마쳤다. 김두민은 2004년부터 Düsseldorf Symphony Orchestra의 첼로 수석으로 활동 중이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하이든/첼로협주곡 제1번 다장조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4번 바단조 작품 36
 • 지휘/김범수(수석지휘자)
 • 협연/김두민(첼로)



제4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일 시 | 5월 30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637-0125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이태석 신부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나눔문화의 활성화와 클래식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하는 제4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지휘자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

로 소프라노 김경희, 고예정, 테너 임충진, 홍지형, 베이스 양재원이 출연, 이태석 신부가 작곡한 '오케스트라를 위한 동근해'를 비롯해 가곡과 아리아를 들려준다.

- 예술감독 · 지휘/오충근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BSO)
- 협연/김경희, 고예정(소프라노), 임충진, 홍지형(테너), 양재원(베이스)

효원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The Legend

일 시 | 5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백규진 010-3859-4225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한 젊은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효원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그동안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효원국악관현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창작국악관현악 1세대 작곡가들의 초기작품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한국창작음악의 전설적인 곡들을 통해

무분별한 퓨전화를 통해 벌어지는 한국음악의 변형을 점검하고 한국창작음악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이다.

프로그램

이강덕/염불주제에 의한 환상곡
 이상규/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관현악
 김희조/합주곡 1번
 황의중/해금협주곡
 박범훈/춤을 위한 내내니
 • 지휘/백규진

김소현 해금 독주회 'One fine day'

일 시 | 5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김소현 010-4642-931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부산해금아쟁연주단 해아연 단원, 퓨전국악그룹 BE 동인으로 활동 중인 해금연주자 김소현 독주회.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김소현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중요제례악 전수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산회상 중 '상량산'(해금/김소현, 거문고/전현진, 단소/조은경)

김영재류 해금 산조(해금/김소현, 장단/박재현)
 혼불V - 시김(해금/김소현)
 One fine day(해금/김소현, 피아노/차민영)

제47회 인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31일 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4천원
 문 의 |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626-8081

지난 1996년 창단된 법인예술전문교향악단인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47번째 정기연주회.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대형오페라 연주, 자선음악회, 시민을 위한 순회 야외음악회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청소년오케스트라인 '인코리안유스오케스트라', 아마추어오케스트라인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를 운영, 교육해오고 있다.

프로그램

하이든/교향곡 제104번 라장조 '런던'
 슈베르트/교향곡 제9번 다장조 '그레이트'
 • 지휘/윤상운(동일대학교 교수)



부산장로성가단 제16회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1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지칭화 010-2554-4002

...

지난 1986년 11월 장로 26명으로 결성, 1987년 5월 창단기념공연을 가진 부산장로성가단의 16번째 정기연주회.

현재 62개 교회 80여 명의 장로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장로성가단은 그동안 부산은 물론 서울, 광주, 대구, 인천 등 160회에 이르는 국내 연주와 미국, 유럽 등 40회의 해외연주, 특별연주회 등 성가연주를 통한 찬양과 선교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지휘/김일연(고신대학교 교수)
- 찬조출연/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동의대학교 교수), 수영로교회 관현악단



Doctors Symphonic Band 제14회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3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닥터스 심포닉 밴드 010-9458-9258

...

예술과 더불어 음악을 인생의 한 동반자로 즐겨온 의사들로 구성된 닥터스 심포닉 밴드의 14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1년간 바쁜 일상에서 틈틈이 수련한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주는 이번 무대에서는 그 동안 진료실에서만 만나던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는 모든 관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복한 무대로 마련된다.

- 음악감독/정홍기
- 협연/클라리네티스트 조단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1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15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일 시 | 6월 3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3, 3105

...

우리 음악을 이끌어갈 차세대 유망주들의 등용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1회 청소년 협연의 밤. 오디션 통해 선발된 유망주들이 김철호 수석지휘자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협연한다.

[프로그램]

- 김희조(편곡)/서용석류 대금산조 협주곡 '이정면/해금협주곡 '활의 노래'
- 박범훈/22현가야금을 위한 협주곡 '새산조'
- 이상규/대금협주곡 '대바람소리'
- 최경만(구성)/태평소 협주곡 '호적풍류'
- 박범훈/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현악 협주곡 '신모듬'
- 지휘/김철호
- 협연/장진엽(대금, 추계예술대 4학년), 정서화(해금, 부산대 4년), 전민경(가야금, 부산대 대학원 재학), 오동욱(대금, 부산대 대학원 재학), 이주현(태평소, 부산대 대학원 재학), 박상영(타악, 원광디지털대 3학년), 전정현(타악, 부산예술대 1학년), 이현서(타악, 부산대 2학년), 강우담(타악, 부산예술대 2학년)

Music 음악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2~3

...

6일 **바리톤 강경원이 들려주는 슈만의 '시인의 사랑'과 로맨틱한 독일 오페라, 오페레타 아리아의 밤**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디플롬, 엑지멘, 마이스터)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영재원, 부산예고, 인제대학교 외래교수, BS마린캄머오퍼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바리톤 강경원의 무대. 슈만의 '시인의 사랑' 전곡에 이어 모차르트, A. 로르칭, 바그너, 레하르 등 독일 오페라 및 오페레타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피아노/권준

13일 **Dear My Family**

부산대학교와 미국 보스턴 콘서바토리, 하트포드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김소

Space UM

차가 있는 목요일음악회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스페이스 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

복합문화공간 Space UM이 매주 목요일 저녁 마련하는 '차가 있는 음악회' 5월 무대.

7일 **프리모칸타티 초청음악회 'The 어울림'**

오스트리아, 이태리, 독일, 미국 등 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현재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남성성악가 6인이 피아니스트 강지원과 의기투합해 창단한 프리모 칸타타의 무대. '프리모 칸타타(Primo Cantante)'는 '최고의 가수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태리어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포스터 가곡모음을 비롯해 팝송 명곡모음, 뮤지컬 넘버, CM송 메들리, 흘러간 추억노래 등 대중들에게 친숙한 레퍼토리로 꾸며진다.



의 음악동화 '피터와 늑대'를 두 대의 피아노로 들려준다.

- 해설/테너 오동주
- 구연동화/권순영(부산색동회 이사)

20일 **칸타빌레 남성앙상블 '교과서 음악회'**



1997년 12월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의 국립대학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정성삼 성악가들로 구성된 칸타빌레 남성앙상블의 무대. 고전적 레퍼토리의 답습을 피하고 새로운 음악을 발굴, 아름다운 심성의 세계를 인성(人聲)으로 표현해 온 칸타빌레 남성앙상블은 넉넉함과 편안함, 드라마

호국보훈의 달 기념 부산시립합창단 제157회 정기연주회

베르디의 '레퀴엠'

일 시 | 6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2, 3108

...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시립합창단이 마련하는 제157회 정기연주회 '베르디의 레퀴엠'. 베르디 최고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레퀴엠'은 그가 존경해마지 않았던 이탈리아 대문호 알레산드로 만초니의 서거 1주년을 추모하기 위해 작곡된 곡으로, 장대한 규모와 화려한 작풍, 강렬한 어조와 풍부한 노래들로, 죽음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섭리와 마주한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절박한 호소를 생생하면서도 강렬하게 전달해준다.

이번 무대는 창원시립합창단 음악감독으로 있는 객원지휘자 윤의중이 지휘하고 부산시립합창단과 창원시립합창단, 소프라노 김유심, 메조소프라노 추희명, 테너 김충희, 바리톤 최중우가 출연한다.

- 객원지휘/윤의중(창원시립합창단 음악감독)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 협연/소프라노 김유심, 메조소프라노 추희명, 테너 김충희, 바리톤 최중우

토요상설무대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 부산국제연극제와 부산청소년예술제 일정으로 2일, 9일, 16일은 공연이 없습니다.)

입장료 | 선착순 무료 (공연 30분 전 입장, 7세 이하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6

5월 23일 민들레 인형극단

...

지난 2005년 창단 후 인형극을 통해 꿈과 사랑을 전하는 인형극 전문극단 '민들레 인형극단'의 무대.

Opening 강아지 행진(줄인형)

라데츠키 행진곡, 방귀대장 뽕뽕이

인형극 숲속에 놀러 나온 아기고양이가 새와 벌레들과 한참 놀다 엄마를 잃어 버렸어요. 엄마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개구리와 엄마 닭에게 물어보는데...

Ending 인형 체험하기

등장 인형들을 다시 만나고 무대 위로 관객을 초대하여 약속하고 이야기 나누는 체험시간

- 출연/이숙자(냥냥이), 김영희(엄마닭, 현지), 권순덕(그림자인형), 정명희(개구리), 이재경(병아리)

5월 30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함녕지곡(집박/채수만, 소금/한영길, 대금/최재호, 김수일, 강은주, 피리/김경수, 박영은, 권미정, 해금/최윤희, 이은주, 강민정, 아쟁/최희정, 장구/송강수, 좌고/김인균)

옥류금 독주 '꽃피는 봄이 오면'(옥류금/하지희)

판소리(소리/박성희, 고수/송강수)

천년만세(대금/김수일, 피리/박영은, 해금/최윤희, 단소/조은경, 양금/장미진, 가야금/이명일, 거문고/송다솔, 장구/박재현)

산조합주(대금/최재호, 피리/권미정, 해금/강민정, 아쟁/박일, 가야금/김지현, 거문고/박하혜, 장구/박재현)

사물놀이(꽝과리/김인균, 장구/전학수, 징/박재현, 북/송강수)

- 해설/전현진



- 출연/테너 서명보, 임성규, 최광현, 바리톤 조성빈, 한정현, 베이스 최현욱, 피아니스트 강지원

14일 **피아니스트 최영민 피아노, 애니메이션과 만나다**



오랫동안 큰 사랑을 받았던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아름다운 영상미와 OST로 많은 마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미야자키 히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내일도 칸타빌레'로 리메이크되었던 '노다메 칸타빌레'까지 유명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들을 수 있었던 아름다운 음악을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최영민의 편곡으로 영상과 함께 들려준다.

21일 **올그라운드스타 'Close to you'**

부산에서 왕성한 활동 중인 베이스 연주자 하진호를 중심으로 2012년 결성된 '올그라운드스타(All Ground Star)'의 무대. 팀 이름처럼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재즈의 즉흥 요소의 기반 아래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선보여온 올그라운드스타는 2013년 부산

탁한 강렬함과 화려함이 어우러지는 열정 넘치는 무대로 관객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국내의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테너/이홍득, 이은민, 김화정, 양승엽
- 바리톤/김길수, 안상철
- 베이스/박기범, 이상철, 김정대
- 피아노/최영민

27일 **테너 김지호의 꿈꾸는 시인의 사랑**

경성대학교와 독일 쾰른 국립음대, 러시아 마그니타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김지호의 무대. 독일가곡연구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김지호는 그동안 오페라 주역으로 국내외 무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의 서정시인 하이네의 시와 슈만의 음악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연가곡 '시인의 사랑' 전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이화영선

재즈콘서트 초청연주, 2014년 부산재즈뮤지션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등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 연주/허진호(리더, 베이스), 김승모(색소폰), 심규성(트롬본), 김인연(기타), 김민희(신디시저), 곽영일(드럼)

28일 **동아대학교 실용음악학과 '라운제나' IN 버스킹 콘서트**

동아대학교 실용음악과 학생들로 구성된 버스킹연주팀인 '라운제나'의 무대. 대중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최신 대중음악을 비롯해 보컬과 악기의 개성에 맞게 재즈, 팝,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 출연/썬썬단호박(보컬 박정은, 보컬 허소영, 기타 이동현), 라잇릿(Like it.) (보컬 구윤화, 피아노 최지혜, 드럼 한승보)



부산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문화나눔 콘서트 '행복한 5월'

일 시 | 5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 13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 21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27일 수요일 오후 7:30 북구문화빙상센터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5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시립예술단이 평소 부산문화회관을 찾기 힘든 지역민들을 위해 區 문화회관을 순회하는 문화나눔 콘서트 '행복한 5월'. 5월 1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흥겨운 민요한마당'을 시작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합창단이 동래문화회관과 금정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북구문화빙상센터에서 온 가족이 부담없이 편히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1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흥겨운 민요한마당'
13일 부산시립교향악단 '댄스 위드 미'
• 지휘 및 해설/장병휘 • 바이올린/곽규림
21일 부산시립합창단 'Pop & 가요'
27일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매직 브라스'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일명무대 행복한 국악나무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3:00(2일 공연없음)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전통예술에 대한 감수성 함양 및 국악 대중화를 목적으로 매주 토요일 마련해온 국립부산국악원의 대표 상설공연 '토요일명무대' 5월 무대.

9일 **가락에 시름을 씻고 흥을 담아-민속악**
회심곡, 산조, 대풍류, 판소리와 고법, 시나위와 살풀이, 동해안무속사물

16일 **화려한 새로운 몸짓-창작춤**
삼고무, 탈빔, 청음무, 춤·소리, 부채춤, 운우고전

23일 **국악관현악과 놀이보자-국악관현악**
피리협주곡 '자진한임', 해금협주곡 'Verses'
성악협주곡 '아리랑연곡', 현악협주곡 '산조협주곡'
대금·아쟁협주곡 '민요모음', 장구협주곡 '오디세이'

30일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무형문화-유네스코 지정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묘제례악, 처용무, 가곡, 영산재 작법, 아리랑,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2015 국립부산국악원 어린이음악극 알콩달콩 우렁친구

일 시 | 5월 2일-3일 토-일요일 오후 3:00,
4일 월요일 오후 7:30, 5일 화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1만원
(청소년 50% 할인, 만5세 이상 관람가)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지난 2013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립부산국악원이 제작한 어린이음악극 '알콩달콩 우렁친구' 2015년 무대. 씩씩하고 정의로운 산골소년 동이는 언제부터인가 혼자 인 게 외롭고 심심하던 중 친구가 생기길 소원하고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예쁜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전래동화 '우렁각시'를 바탕으로 한 이번 무대는 알콩술에 혼자 사는 산골소년 동이가 친구들과의 우정을 통해 나보다는 우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우리의 전통춤과 음악으로 그려낸 창작음악극이다.



부산국악작곡가회 제14회 정기연주회 새로운 소리여행 금정산 바람되어

일 시 | 5월 6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대학교 510-1739

2002년 5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창작국악의 활성화에 기여해온 부산국악작곡가회의 14번째 정기연주회.

2004년부터 시(詩)를 노래와 음악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을 통해 대중들과 소통해온 부산국악작곡가회는 2011년부터는 '새로운 소리여행'이라는 타이틀로 창작음악의 지평을 넓혀왔다.

|프로그램|
김진영/비락(悲樂)
성기영/우주 이야기(짧은 이야기)
이은경/꽃담
백규진/가야금과 기타를 위한 '제'
황의중/금정산 바람되어[김정자 시]
조악래/어우락 더불어(Together with Vietnam)
박선영/사랑을 바라보다
• 음악감독/황의중 • 해설/백규진

음악풍경 토크콘서트 '나를 적시고 간 노래들'

일 시 | 5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음악풍경 연주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 음악풍경 987-5005

'음악으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문화네트워크 음악풍경이 마련하는 토크 콘서트. 지역사회 명망있는 인사를 초청, 그들의 삶의 위안과 감동을 안겨준 음악의 사연과 함께 들어보는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로, 초대손님과 관객과의 음악적 소통과 공감을 꾀한다.

5월 무대에서는 현재 부산소설인협회 회장, 봉생문화재단 부이사장으로 있는 작가 최화수를 초청, 그의 사연을 음악 또는 영상으로 함께 들어본다. 최화수는 국제신문 편집부국장, 논설주간을 지내고 문학도시 작가상, 부산문학상 본상, 부산시문학상(언론출판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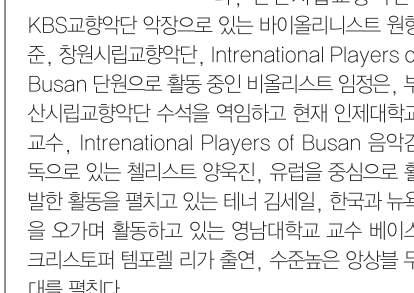
|프로그램|
라크리모사, 트로이메라이, 달밤, 비록, 원 모어 타임, 가브리엘의 오보에, 이랑체츠 기타협주곡 등
• 진행/박원일(작곡가)

New York in Busan

일 시 | 5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락연 010-9610-9465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김정권을 비롯해 피아니스트 박민선, 창원시립교향악단 악장, 이리나, 부산시몬리에타, 대구오페라하우스 객원수석, 김해시몬리에타 수석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방효준, 코리안심포니, 인천시립교향악단, KBS교향악단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원형준, 창원시립교향악단, Intrenational Players of Busan 단원으로 활동 중인 비올리스트 임정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교수, Intrenational Players of Busan 음악감독으로 있는 첼리스트 양욱진,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김세일, 한국과 뉴욕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영남대학교 교수 베이스 크리스토퍼 템포렐 리가 출연, 수준높은 앙상블 무대를 펼친다.



제2회 김예지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5월 9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백은영 010-4548-8555

초등학교 시절 부산음악협회콩쿠르 1위를 시작으로 음악세계 주최 콩쿠르, 중앙음악콩쿠르, 현대음악콩쿠르, 브니엘예술고등학교 콩쿠르, 부산대학교 주최 콩쿠르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은 부산예고 1학년 김예지의 두 번째 독주회.

김예지는 2013년 부산시예술영재원에서 실기와 성적우수자에게 주어지는 부산시교육감상을, 올해 중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전공실기우수자와 학업성적우수상, 부산음악교육연구회 특별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스카를라티/소나타 K.380 L.23, 소나타 K.135 L.224

생상/알레그로 아파시모나토 작품 70
비제/에튀드 제4번
루도슬라브스키/에튀드 제1번 등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해금주자 꽃별 '세계 속의 우리 음악 시리즈 1'

일 시 | 5월 12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2015년 색다른 만남 '콜라보레이션(협력, 협작)'을 주제로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닌 아티스트들이 만나 색다른 무대를 선사하는 영화의전당 마티네 콘서트 5월 무대. 5월에는 서정적 감성의 해금 솔리스트 꽃별이 피아노와 기타, 아코디언 등 다양한 서양악기와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해금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국악계의 뮤즈 꽃별은 지난 10여 년간 앨범과 공연을 통해 재즈, 뉴에이지, 팝, 클래식에서 민요까지 자유분방하면서도 창의적인 연주로 한국형 월드뮤직의 미래를 제시해오고 있다.



레미 파노시앙 트리오 콘서트 Rp3 앨범 발매기념 내한공연

일 시 | 5월 9일 토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4만원(예매시 3만 5천원)
문의 | 무대공감 623-0678

프랑스 출신의 재즈 트리오 레미 파노시앙 트리오 부산 무대. 레미 파노시앙(피아노), 프레드릭 페티프레즈(드럼), 막심 델포트(베이스)로 구성된 레미 파노시앙 트리오 는 지난 2010년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을 시작으로 그동안 국내 투어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세 번째 앨범 'RP3' 발매를 기념해 마련한 이번 무대에서는 2013년, 2014년 한국 공연을 통해서 소개했던 곡들로 구성된 3집 앨범 'RP3' 수록곡을 통해 전형적인 피아노 트리오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팝, 록, 힙합, 일렉트로니카 등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들을 만날 수 있는 레미 파노시앙 트리오만의 재기발랄한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다.



제6회 리스트협회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11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한국리스트협회 부산경남지부
010-7323-7645

2011년 헝가리 태생의 위대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프란츠 리스트 탄생 200주년을 맞아 리스트의 작품을 연구하고 소개하기 위해 결성된 한국리스트협회 부산경남지부의 6번째 정기연주회. 한국리스트협회는 1999년 리스트의 작품을 소개하고 음악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16명의 젊은 피아니스트들로 창단. 매년 두 차례의 정기연주회를 통해 리스트의 음악세계를 알려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한정민, 이명숙, 김현경, 장윤정, 손영주가 리스트를 비롯한 슈베르트 곡을, 성악가 이승온이 드뷔시, 포레의 가곡을 들려준다.

• 연주/한정민, 이명숙, 김현경, 장윤정, 손영주
• 찬조출연/성악가 이승온

피아니스트 진승민 귀국독주회

일 시 | 5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진승민 010-2122-4062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도독, 독일 슈트트가르트 국립음대 석사과정에서 사위원 최고점으로 졸업한 피아니스트 진승민 귀국독주회. 진승민은 섬세한 기교와 풍부한 음악성으로 이태리 Gianluca Campochiaro 국제콩쿠르 1등, 이태리 Lia Tortora 국제콩쿠르 1등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쇼팽/발라드 제1번 서단조 작품 23
하이든/피아노 소나타 내림마장조 Hob.XVI/52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30번 미장조 작품 109
라벨/라발스



제41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The Great Soul_베토벤, 시벨리우스

일 시 | 5월 14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상임지휘자 이효상이 이끄는 T.I.F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대구작곡가협회 2014 올해의 작곡가상을 수상한 작곡가 이정연의 창작곡 'Rhapsody on the theme of Long Long Ago for Orchestra'와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제5번, 시벨리우스 교향곡 제2번

을 들려준다.

이번 무대에서 피아노 협연을 맡은 경성대학교 조현선 교수는 독일 국립퀸른음악대를 졸업하고 그동안 한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에서 180여회 연주회를 가져왔다.

- 예술감독/김원명
- 연주/T.I.F 심포니오케스트라
- 협연/피아니스트 조현선
- 지휘/이효상
- 작곡/이정연

스승의 날 기념 제자사랑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제7회 인제대학교 제자사랑 교수음악회

일 시 | 5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055-320-3861

매년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교수음악회를 통해 제자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는 인제대학교 교수음악회 7번째 무대로 학과장인 소프라노 허미경을 비롯해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강사들이 출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장학금 음악회를 연다.

- 연주/허미경(소프라노), 김복수(바이올린), 김성진(테너), 오세일(작곡), 오신정(플루트), 양욱진(첼로), 이병욱(지휘), 권준(피아노), 이소영(피아노), 박은주(플루트), 문동원(오보에), 최은진(클라리넷), 이슬기(바순)



2015 안민 교수와 함께하는 페로스합창단 행복 콘서트

일 시 | 5월 18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박용선 010-3035-1843

지난 1988년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성악 전공 학생들로 창단된 페로스합창단 행복콘서트. 2,000년 동안 쉬지 않고 어두운 바다를 비추어온 '페로스(Pharos)' 등대에서 그 이름을 가져온 페로스합창단은 그동안 전국순회공연 및 400여 찬양집회와 10여 차례 해외공연을 통해 최고의 교회음악 전문합창단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 지휘/안민
- 독창/테너 정재문, 소프라노 김찬미, 테너 소코
- 중창/삼승중창단



김성숙, 안준희의 프로젝트 콘서트 집중탐구 시리즈(8) Viva Ame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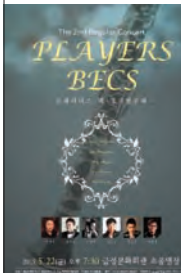
일 시 | 5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안준희 010-4151-3667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과와 미국 위스콘신주립대를 졸업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성숙과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프랑스 에콜 노르말 고등음악원, 웨일 말메종 국립음악원, 메쓰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부산반주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안준희가 함께하는 프로젝트 콘서트 집중탐구 시리즈 8번째 무대. 미국의 대표 작곡가들의 듀오곡 및 성악곡을 프로그램으로 선정, 연주를 통해 미국음악의 특징을 들려준다.



제2회 플레이어스 벵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플레이어스 벵 010-8007-8087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 경남, 경북 출신의 클라리넷리스트들로 결성된 국내 유일의 클라리넷 솔리스트 단체인 '플레이어스 벵'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Bec'은 프랑스어로 클라리넷의 마우스피스를 뜻하는 말로, '클라리넷을 부는 사람들'이란 뜻을 지닌 '플레이어스 벵(Players Becs)'은 그동안 독주, 듀오, 트리오, 콰르텟 등 편성에 구애받지 않고 아름답고 화려한 클라리넷의 매력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 클라리넷/권병욱, 유지훈, 이원기, 장일훈, 정준화, 황남용
- 피아노/김영실

재즈 와인에 빠지다 70th Concert 재즈피아니스트 남경윤 Trio with 강윤미

일 시 | 5월 22일 금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R석 3만 5천원, S석 2만 5천원
문의 | 무대공간 623-0678, www.mudae.kr



한 달에 한 번 재즈와 와인 이 만나는 달콤한 무대 '재즈 와인에 빠지다' 70번째 무대. 화려한 수상경력과 국제무대 연주경력에 빛나는 재즈 피아니스트 남경윤을 중심으로 국내 여성드러머 최초로 독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드러머 서미현, 미국 LA 최고의 베이시스트로 손꼽히는 라이언 맥길리 커디로 구성된 남경윤 트리오와 유럽에서 인정받은 탁월한 보컬리스트 강윤미와의 특별한 만남이 펼쳐진다.

한낮의 유U; 콘서트 100회 특집 천재 재즈피아니스트 론 브랜트 내한공연 All That Jazz

일 시 | 5월 19일 화요일 오전 11:00
롯데호텔부산 아트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국제신문 문화사업국 500-5222



미국 워싱턴포스트지로부터 '매우 시적인 피아니스트'라는 호평을 받은 재즈 피아니스트 론 브랜트 초청무대로 마련되는 한낮의 유U; 콘서트 100회 특집 무대.

섬세하고 서정적인 음악적 감성과 뛰어난 테크닉을 갖춘 론 브랜트는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레코딩 세션, 작곡, 편곡, 재즈 클럽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쳐오다 지난 2001년 론 브랜트 재즈그룹을 결성,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무대로 활동해오고 있다.

- 연주/론 브랜트(리더, 피아노), 리처드 로(색소폰), 류크 도일(기타), 신동진(퍼커션)

숨니움앙상블(SOMNIUM ENSEMBLE) Klavier+α...어울림의 시작

일 시 | 5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의 | 이혜경 010-2881-5921



음악에 대한 꿈과 열정을 연주자들과 관객들간의 소통을 통해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무대를 위해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숨니움앙상블의 첫 번째 무대.

피아노를 중심으로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국악기 등 다양한 악기의 앙상블과 새로운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날 예정인 숨니움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장르 작곡가의 피아노 트리오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 아렌스키/피아노 트리오, 피아졸라/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 니노 로타/플루트, 바이올린,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 연주/이혜경, 김영실, 전은지, 정다희, 유지훈, 김기민, 탁서연, 김기량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캐네디언 재즈 퀸텟 with 장사익

일 시 | 5월 20일 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VIP 7만원,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정통재즈와 다양한 음악장르를 표현해온 캐네디언 재즈 퀸텟과 이 시대 최고의 소리꾼으로 사랑받고 있는 소리꾼 장사익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장사익 소리판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기타리스트 정재열과 그의 음악적 동반자인 드러머 Ben Ball, 음악적 스승이기도 한 재즈피아니스트 Brian Dick-inson, 테너 색소폰 연주자 Kirk MacDonald, 베이시스트 Mike Downes, 해금연주자 하고은으로 결성된 캐네디언 재즈 퀸텟이 한국인에게 친숙한 국악가락의 선율을 모던재즈 스타일로 편곡,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한국과 유럽음악 기행

일 시 | 5월 23일 토요일 오후 5:30 수아트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 수아트홀 744-1415

2012년 5월 개관 후 연주자와 청중이 가까워서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가져온 해운대 수아트홀이 마련한 '한국과 유럽음악 기행'.

소프라노 김옥, 이명규, 메조소프라노 김혜근, 테너 이상민, 바리톤 오현승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가곡을 비롯해 독일가곡, 프랑스가곡, 러시아가곡, 이탈리아가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국과 유럽 음악여행을 떠난다.

- 출연/소프라노 김옥, 이명규, 메조소프라노 김혜근, 테너 이상민, 바리톤 오현승



스트로크 타악기앙상블 제1회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23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스트로크 타악기앙상블 010-9817-0010

지난 2005년 부산, 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타악기 연주자들로 결성된 스트로크 타악기앙상블의 11번째 정기연주회. 매년 1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통영국제음악제, 부산실내악페스티벌, 안동전국타악기페스티벌 등에 참가해 깊이 있는 타악기음악의 해석과 수준 높은 예술적 표현으로 호평을 받아온 스트로크 타악기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클래식 음악의 격조있는 매력과 현대 타악앙상블의 독창성이 어우러지는 역동적이면서도 리드미컬한 타악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안은지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5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예인예술기획 02-586-0945



탁월한 음악성과 세련된 연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안은지 귀국 독주회.

부산예술고등학교, 경원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도미, 메네스음대 석사, 보스턴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안은지는 그동안 페스티벌 및 콘서트, 마스터 클래스 등에 참가해 연주기량을 쌓아왔다. 안은지는 현재 대구 MBC교향악단 제2바이올린 객원수석, 실내악그룹 The Blossom 멤버로 활동하며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프로그램]

- 베토벤/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라장조 작품 12 제1번
- C. 아이브스/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4번 피아졸라/그랜드 탱고
- 피아노/한미연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Baum Kammer Ensemble (바움 캄머 앙상블) 창단연주회

일 시 | 5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지난 3월 개관 3주년을 맞아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서는 최초로 결성된 상주 연주단체인 '바움 캄머 앙상블' 창단무대. 바움 캄머 앙상블은 앞으로 5~10명의 연주자로 분기별 정기연주회를 통해 실내악의 매력을 선사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대학교 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이명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심신지,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상임단원인 첼리스트 유주연, 피아니스트 최영민의 앙상블 무대로 꾸며진다.



창작오페라 '포은 정몽주'

일 시 | 5월 27일 수요일 오후 1:00
금정문화회관 야외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3



따뜻한 봄날, 야외공연장에서 즐기는 오페라 무대 창작오페라 '포은 정몽주'. 충절과 절의의 상징인 정몽주 선생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완성도 높은 무대로 담아낸 '포은 정몽주'는 시조 '단심가'와 선죽교에서의 최후로 기억되는 정몽주의 삶을 보다 다양하게 그려내며, 특히 가상의 인물 기생 초선과 정도전, 이방원의 삼각관계를 통해서 아름답고 애절한 사랑이야기를 펼친다.

이번 무대에서는 야외공연이라는 특성에 맞춰 오페라 대본을 쓴 작가 신동근이 직접 해설을 맡아 오페라 주요장면을 들려준다.

부산챔버스퀘어와 함께하는 클래식 산책 제6회 프롬나드콘서트

일 시 | 5월 28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퀘어를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621-4577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의 후원을 통해 지역 문화와 공연 단체에 대한 지원은 물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온 프롬나드 콘서트. 5월 무대에서는 지휘자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현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 이태리 데이바 마리아 국제콩쿠르 특별상, 제15회 오사카 국제콩쿠르 Espoir Prize, 제7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클래식타임즈상을 수상한 소프라노 김연주가 협연한다.



제1회 부산아외오페라 페스티벌 마리아 굴레기나 그랜드 오프닝콘서트

일 시 | 5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 R석 25만원, S석 20만원, A석 15만원,
B석 10만원, C석 8만원, D석 5만원,
자유석 3만원
문 의 | 솔오페라단 1544-9373

'오페라계의 신데렐라'로 불리는 세계 최정상급 오페라 디바 마리아 굴레기나 첫 내한무대. 파바로티 상대역으로 무대에 섰던 라 스키타라 오페라 '가면무도회'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마리아 굴레기나는 1996년 베로나 야외극장에서 바부코의 아버지 역할로 조반니 지나텔로상을 수상한데 이어 1999년 오사카 페스티벌 금메달, 2009년 최고의 푸치니 오페라 프리미엄상, 마리아 잠보니 금메달,



2001년 벨리니상 등 수많은 상을 받으며 세계 유명 오페라극장을 누비고 있다. 특히 마리아 굴레기나는 '베르디가 몸속의 혈관에서 흐르고 있는 러시아의 소프라노라는 평과 함께 '성악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오페라 디바, 일 트로바토레, 돈 카를로 등 베르디 오페라 전반에 걸쳐 탁월한 표현과 뛰어난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뿐만 아니라 감미로운 뮤지컬곡과 나폴리 민요 등 관객들에게 친숙한 대중적인 레퍼토리로 함께 들려준다.

- 지휘/파비오 마스트란젤로
- 출연/마리아 굴레기나, 루벤스 펠리피리, 엘리아 파비안, 최중우, 김지호, 조현수 외

제1회 부산아외오페라 페스티벌 오페라 '아이다'

일 시 | 5월 29일-31일 금-일요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 R석 25만원, S석 20만원, A석 15만원,
B석 10만원, C석 8만원, D석 5만원,
자유석 3만원
문 의 | 솔오페라단 1544-9373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감독으로 15세의 올리비아 핫세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던 영화감독이자 오

페라 연출자인 가장 프랑코 제피렐리가 연출한 오페라 '아이다'. 영화 '햄릿', '제인에어', '말괄량이 길들이기' 등 주옥같은 명작으로 이탈리아의 셰익스피어로 불리는 프랑코 제피렐리는 1950년대 초부터 오페라 연출에 뛰어난 예술가로, 전설적인 가수 마리아 칼라스와 '라 트라비아타', '노르마' 등을 무대에 올리며 탁월한 오페라 감독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제피렐리가 1963년 라 스키타라 극장의 데뷔작으로 선보인 오페라 '아이다'는 베르디 서거 100주년을 기념, 토스카니니 재단에서 프랑코 제피렐리에게 의뢰하며 만든 작품으로 관객들의 찬사가 끊이지 않았던 명작이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오페라축제 'Arena di Verona'의 대표적인 지휘자 파비오 마스트란젤로가 지휘하고 금세기 최고의 드라마틱 소프라노 마리아 굴레기나와 Teatro alla Scala 극장의 주역 바리톤 엘리아 파비안 등 세계 정상급 성악가들이 무대에 선다.



음악풍경 청년음악가 시리즈 5, 6 청년이 살아야 음악이 산다

일 시 | 5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음악풍경 연주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 의 | 음악풍경 987-5005

역량있는 신예 음악가들을 발굴, 데뷔무대를 갖게 하는 청년음악가 시리즈 5월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중앙대학교 피아노과와 독일 카셀 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독주회, 협연, 앙상블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김민주와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동의대학교, 창신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클리리네티스트 이현진의 무대로 마련된다.

[프로그램]
바흐/프랑스 모음곡
베토벤/소나타
슈만/번 소곡제 등
• 진행/조용연



예타래와 함께하는 우리음악 느끼기

일 시 | 5월 30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조악래 010-9878-7942



청공연, 통영국제음악제 초청공연, '숨쉬는 땅' 기획공연, 슬로바키아 국립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 수많은 연주회를 통해 우리음악의 새로운 해석과 음악의 영역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프로그램]
조악래/어우락 더불어락(Together with Vietnam)
[창작초연]
이경섭/해금협주곡 '秋想'
피아노, 색소폰&풍물을 위한 퓨전시나위 2015 등

고아라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6월 1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부산예고를 졸업하고 도독,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자브뤼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고아라 귀국 독주회. 고아라는 현재 웬 챔버오케스트라, 앙상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산베르크/환타지 작품 47
모차르트/소나타 KV. 378 니장조
시라시테/찌고이네르바이젠 작품 20
슈만/소나타 작품 121 제2번 라단조



Play 연극

힐링뮤지컬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일 시 | 1월 6일(화)-5월 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공휴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 일반석 3만 5천원, 프로포즈석 5만원
문 의 | ㈜문화화 1600-1602



10년 동안 한 사람을 그리워한 남자 태양과 10년 동안 한 사람을 마음에만 품어온 여자 두나, 그리고 친구의 첫사랑을 이어주기 위해 노력해온 두나의 소꿉 친구 만식과 제니 등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주는 두 쌍의 연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콘서트 뮤지컬. 감동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연극무대에 이어 2부 콘서트에서는 관객 모두가 참여하는 열정적인 스탠딩 콘서트가 펼쳐진다.

• 작·작사·작곡·연출/김민

연극 '이프온리'

일 시 | 3월 6일(금)-5월 31일(일) 화-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
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플레이어부산 1600-0316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3일간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 '이프온리'. 10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앞둔 한 커플의 일상이 한 순간에 바뀐다. 재운과 수진은 결혼 준비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고 그들이 헤어지는 순간 재운이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게 된다. 재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수진은 공원에서 죽음을 결심하고, 그 때 나타난 점쟁이의 도움으로 하루에 한 시간, 삼일 동안 재운을 만날 수 있게 되지만 막상 재운은 수진을 기억하지 못한다. 죽어서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독특한 형식으로 풀어낸 연극 '이프온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그(그녀), 보내고 남는 그녀(그)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한 번 더 일깨워준다.

연극 '살아보고 결혼하자'

일 시 | 3월 12일(목)-5월 17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월
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가 4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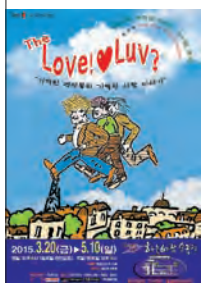


과연 결혼은 요즘 세대들의 생각처럼 '살아보고' 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부모세 대처럼 '결혼하고' 살아봐야 하는 걸까? 혼전 동거에 대한, 더 나아가 결혼 자체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유쾌한 코미디극 '살아보고 결혼하자'. 연극 '살아보고 결혼하자'는 '혼전동거'라는 세대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주제를 통해 사랑, 결혼, 그리고 가족에 대해 풀어낸다.

• 연출/박병모
• 출연/노석채, 김웅희, 한철희, 게이경, 정용락, 전주영, 신영민

극단 아센 제42회 정기공연
The Love! Luv?

일 시 | 3월 20일(금)~5월 10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월요일 공연없음) **하늘바람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극단 아센 504-2544



기막힌 연인들의 기발한 사랑이야기 초고속 논스톱 하이 코미디극. 아내가 친정에 가 있을 동안 자신의 정부를 불러들여 근사한 생일파티를 열 계획을 세우던 남편은 갑자기 취소된 아내의 여행계획에 전전긍긍하다가 궁여지책으로 자신의 절친한 후배에게 정부의 애인역할을 맡긴다. 그러나 후배는 사실 아내의 정부이고 아내가 여행계획을 변경한 이유 역시 후배를 만나기 위한 아내의 계획인데... 일상에서 벌어지는 웃음의 다양성을 차용하되 연극적 상상력과 연기적 순발력으로 연극 특유의 즐거움을 보여준다.

- 원작/M. 까물레띠
- 각색·연출/호민
- 출연/구민주, 박규남, 반지수,곽수정, 호민

뮤지컬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일 시 | 4월 2일(목)~7월 5일(일) 오후 5:00, 8:00(월요일, 5/26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세대별 커플의 사랑을 따듯하고 재치있게 풀어낸 대학로 최고의 스테디셀러 뮤지컬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2015년 무대. 세대를 아우르는 다섯 가지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옴니버스 연극으로, 황혼을 맞이한 동네 오빠, 동생의 애잔한 사랑이야기에서부터 전라도 부부의 거칠지만 진한 사랑, 짝사랑하는 과 선배를 유혹하는 깜찍한 여자후배, 친구 피로연에 갔다가 돌이 난게 된 오래된 두 친구의 이야기까지 종합선물세트같은 다양한 사랑이야기가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 예술감독/위성신
- 연출/신기섭

연극 **‘두 병사 이야기’**

일 시 | 4월 4일(토)~5월 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문화락 1600-1602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리메이크작을 탄생시킨 ‘햄릿’을 비극이 아닌 희극으로 재탄생시킨 연극 ‘두 병사 이야기’. 우연히 유령과 햄릿의 이야기를 듣게 된 병사 버나르는 동료병사 프랜시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두 사람은 선왕의 죽음을 추적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진범이 클로디우스왕인 것을 알게 되고 프랜시스는 이 이야기를 이용해 협박을 해서 한 몫 챙기려는 계획을 세운다. 두 병사는 플로니어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큰 돈을 챙기려 하지만 플로니어스는 햄릿에게 죽임을 당하고 상황은 자꾸 꼬여간다. 두 병사가 바라본 햄릿 사건의 진말을 코믹하게 그려낸 ‘두 병사 이야기’는 2013년 ‘마이크로세익스피어 햄릿전’에서 대상과 연출상을 수상했다.

연극 **‘우리가 사랑할 때’**

일 시 | 4월 10일(금)~6월 2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레몬트리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공연창작집단 펫버릿지 626-3703



꽃 피는 봄과 함께 돌아온 연극 ‘우리가 사랑할 때’ 다섯 번째 앵콜무대. 지난해 초연무대를 가진 후 네차례 앵콜공연을 가졌던 ‘우리가 사랑할 때’는 연애 전문매거진 에디터 선영과 선영의 언니이자 일러스트레이터 미영, 선영의 소꿉 친구이자 연인인 동욱, 미영과의 뜨거운 연애를 펼치는 연하남 춘배의 유쾌한 사랑이야기로,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성적인 작품이다. 신인배우들이 함께하는 더블캐스트 무대로, 기존 배우들의 관록있는 감성연기와 신인배우들의 신선하고 참신한 연기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 작·연출/김민우
- 출연/이다혜, 김미미, 유하나, 변은지, 조현규, 이동욱, 원이현, 박강실

The Presige Show-마술쇼

일 시 | 4월 23일(목)~5월 10일(일) 목-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8: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수요일 공연없음)
청춘나비아트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까리프로젝트 988-7721, 010-4576-7721



매력적인 신사 마술사 임태홍이 펼치는 개성 넘치는 마술 쇼 ‘The Presige Show’. 마술사 임태홍은 그동안 롯데백화점 수원점 찾아가는 마술쇼, 2014 아시아 문화축제 초청 마술공연, 롯데백화점 부산분점 매직 첼린지 마술쇼, 학교폭력에 방 마술쇼, 전유성 철기방극장 초청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나왔다. 깔끔하면서도 에너지 넘치는 마술사 임태홍만의 빠른 손놀림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특히 매주 토요일 공연에서는 돈의 맛을 밝혀내기 위해 돈 연구가와 그의 조수가 특별한 연구실험을 펼치는 유쾌한 코미디 마술극 ‘돈의 맛’이 펼쳐진다.

- 출연/임태홍, 문성룡

전태일 40주기 기념작 **불꽃**

일 시 | 4월 29일(수)~5월 2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 화요일 공연없음)
ilter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 5천원
문 의 | 극단 일터 635-5370, www.ilter.or.kr

청계천 의류시장의 재단사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청년 전태일의 생애와 노동자로서의 삶과 고뇌를 그린 창작극 ‘불꽃’. 저임금에 하루 열여섯시간 노동해야 하는 어린 여공들을 위해 싸우다 스물셋 나이에 몸을 불사른 불처럼 뜨겁고 꽃처럼 아름다운 전태일의 삶이 무대 위에 펼쳐진다.

- 작·연출/김선관(극단 일터 대표)
- 작곡/김미원
- 안무/손영성
- 연주/재즈피아니스트 하지림
- 출연/신현우, 김민지, 박경순, 김주원, 서원오, 김아름, 이효림, 조기정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Welcome, Shakespeare

일 시 | 5월 1일(금)~10일(일) 부산문화회관 대·중·소극장,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부산예술회관, 용천지탈소극장, 공간소극장, 나다소극장, 디코소극장, 수영문화원 바다갤러리, 광안리 야외무대
입장료 | Concept 1층 2만 5천원, 2층 2만원
Go World Festival, Dynamic Fringe 균일 1만 5천원 / 전 작품 관람권 12만원
문 의 | 부산국제연극제 802-8003
www.bipaf.org



올해로 12회를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체코, 미국, 한국 등 6개국 6개 우수작품을 선보이는 ‘Concept’ 과 올해 8월에 열리는 영국 에딘버러축제에 참가할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공연 프로그램 ‘Go World Festival’, 공연단체의 참여 기회 확대와 더욱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Dynamic Fringe’ 등 다양한 작품들이 관객들을 찾는다.

한국 극단 시선 ‘미롱’ [Go World Festival]
1일(금) 오후 5:30, 2일(토) 오후 8:30 공간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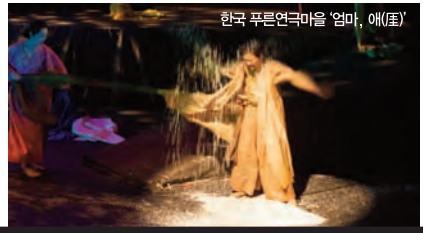
한국 푸른연극마을 ‘엄마, 애(匪)’ [Go World Festival]
1일(금) 오후 8:30, 2일(토) 오후 5:30 공간소극장

미국 CAMT ‘마리오네트 햄릿’ [Concept]
2일(토)~3일(일) 오후 5:00, 4일(월) 오후 7:30, 5일(화)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한국 극단 나비플러스 ‘비둘기’ [Go World Festival]
2일(토) 오후 4:00, 3일(일) 오후 7:00 디코소극장

한국 극단 홀릭 ‘화우’ [Go World Festival]
2일(토) 오후 7:00, 3일(일) 오후 4:00 디코소극장

한국 공연예술집단 아홉 ‘이방인’ [Go World Festival]
2일(토) 오후 8:00, 3일(일) 오후 5:00, 8:00 나다소극장



한국 극단 솔마루 ‘물고기들’ [Dynamic Fringe]
2일(토) 오후 8:00, 3일(일) 오후 5:00, 4일(월) 오후 8:00, 5일(화) 오후 5:00, 8:00 용천지탈소극장

한국 극단 가치가 ‘Antigone is dead’ [Go World Festival]
4일(월) 오후 5:30, 5일(화) 오후 8:30 공간소극장

한국 부산연극제작소 동넨 ‘새 사람’ [Go World Festival]
4일(월) 오후 8:30, 5일(화) 오후 5:30 공간소극장

한국 극단 푸른달 ‘보물상자’ [Go World Festival]
5일(화) 오후 4:00, 6일(수) 오후 7:00 디코소극장

한국 극단 풍등 ‘깨진 밤’ [Go World Festival]
5일(화) 오후 7:00, 6일(수) 오후 4:00 디코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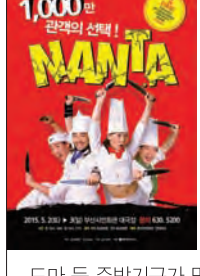
한국 극단 끝판 ‘병자삼인’ [Dynamic Fringe]
6일(수)~8일(금) 오후 8:00, 9일(토) 오후 5:00, 8:00 나다소극장



Program Guide >>>

송승환의 난타

일 시 | 5월 2일 토요일 오후 3:00, 6:00, 3일 일요일 오후 2:00,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문 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1997년 초연 이후 전 세계 51개국 289개 도시를 순회하며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송승환의 난타 퍼포먼스극 ‘난타’ 부산공연. 한국 전통가락인 사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코믹하게 그린 한국 최초의 난타 퍼포먼스극 ‘난타’는 칼과 도마 등 주방기구가 멋진 악기로 승화되어 만들어내는 화려한 연주와 깜짝 전통혼례, 관객과 함께하는 만두싸기, 한국 전통춤과 가락이 어우러지는 삼고구, 가슴이 뻥 뚫릴만큼 시원한 엔딩의 드림연주 등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무대이다. 현재 서울과 제주도의 전용관에서 연중 상설공연 중인 ‘난타’는 한국에서는 전후후무하게 18번째 장기 공연을 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족뮤지컬 **번개맨의 비밀3 스페이스 번개맨**

일 시 | 5월 2일~3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백스코 오티토리움**
입장료 | VIP 5만 5천원, R석 4만 4천원 A석 3만 3천원
문 의 | 힘컨텐츠(주) 02-507-7115



전국 50만 관객이 관람한 가족뮤지컬 ‘번개맨의 비밀 3-스페이스 번개맨’. EBS 간판 어린이 프로그램 ‘모여라 덩동댕’의 인기 캐릭터 번개맨을 주인공으로 한 ‘번개맨의 비밀3-스페이스 번개맨’은 번개맨의 탄생에 얽힌 비밀을 담았던 시즌1과 번개맨의 탄생스토리에 ‘태초의 번개’에 얽힌 비밀이 새롭게 등장하는 시즌 2에 이어 악당 니질란, 더질란의 음모로 위험에 처한 우주를 구하기 위해 사랑의 별로 떠나는 번개맨의 모험을 담고 있다. EBS ‘모여라 덩동댕’ 출연배우 전원이 등장하는 이번 무대는 탄탄한 스토리와 화려한 무대, 귀가에 맴도는 친숙한 음악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어린이뮤지컬 '겨울왕국'

일 시 | 5월 2일-3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4만원, S석 3만원(예매시 30% 할인)
문 의 | 극단 예일 02-555-0822~3

...
'렛잇고(Let It Go)' 열풍을 이끈 동명의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가족뮤지컬 '겨울왕국'. 대중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주옥같은 음악과 화려한 무대, 그리고 발레와 뮤지컬의 만남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판타스틱 매직&버블쇼

일 시 | 5월 5일 화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
환상적인 마술쇼와 버블쇼가 한 무대에서 펼쳐지는 매직버블쇼. 화려한 연출의 마술쇼에서 관객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매직버블쇼까지 다양한 무대가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에게는 상상력의 세계로, 어른들에게는 동심의 세계로 안내한다.

2015년 가족체험음악극
광안가족음악극페스티벌

일 시 | 5월 2일(토)~31일(일) 토요일 오후 1:30
일 · 공휴일 오후 12:00 **ANO아트홀.광안**
입장료 | 어린이 1만 5천원, 어른 1만원
문 의 | (주)플레이더부산 1600-0316



...
등놀이 음악극.

16일(토)~31일(일) 광대동물원

배우와 연주자들이 출연하는 순수 창작 라이브 뮤지컬로, 신나는 재활용 일렉트릭 기타연주와 노래, 마임으로 펼쳐지는 꿈 속 동물원 탐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일(토)~10일(일)

개미와 베팅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화를 소재로, 종이인형으로 제작된 캐릭터와 북, 웨이커, 리듬스틱, 우드블럭 등 다양한 타악기와 신나게 녹음된 드럼비트가 함께 어우러져 어린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종이인형 리

슬라바 폴루닌의 스노우쇼

일 시 | 5월 5일(화)~10일(일) 평일 오후 8:00
토 · 공휴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후 2: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만 6세이상 입장가능)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
막스 밀러, 찰리 채플린, 마르셀 마르스 등 광대 예술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슬라바 폴루닌이 제작한 웃음과 감동의 눈보라 '슬라바 폴루닌의 스노우쇼'. 지난 1993년 초연된 후 전 세계 100여 개 도시, 수천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스노우쇼'는 찰리 채플린을 연상시키는 8명의 광대들이 아무런 대사 없이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은 짧은 에피소드들을 단순한 오브제와 음향효과, 음악, 조명 등 무대장치들을 정교하게 사용함으로써 스펙타클한 무대를 선사한다.

극단 전위무대 제108회 정기공연
신의 아그네스

일 시 | 5월 7일-8일 목-금요일 오후 8:00
9일 토요일 오후 3:00, 6:00
10일 일요일 오후 3:00 **한결아트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한결아트홀 582-2026, 1588-9155



...
• 작/존 필미어
• 역/장세중
• 연출/전승환
• 출연/송순임, 안필자, 김지현

1982년 봄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여성들의 에쿠우스'로 불리며 현재까지도 성황리에 공연되고 있는 '신의 아그네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수녀의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믿음을 둘러싼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

2015 부산공연예술축제
MAC OFF FESTIVAL
'공연을 즐겨라'

일 시 | 5월 9일(토)~19일(화)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아외공연 오후 5: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야외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청소년 1만 5천원
(야외공연 무료)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극단 맥 625-2117



놀이패 동해누리 '진달래 블루스'

9일(토) 오후 5:00 **야외공연장**
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 진주, 삼천포 농악 이수자, 전수생으로 구성된 놀이패 동해누리의 무대.

프랑스 발콩극단 '예견자, 빅토르 위고'

9일(토) 오후 4:00 **대극장**
19세기 프랑스의 대문호이자 정치가였던 빅토르 위고의 명연설을 배우이자 연출가인 세르주 바르뷔시아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각색한 작품.

벨기에 극단 찰리와테 '섬...물을 찾아서
(원제:ILO)'

11일(월)~12일(화) 오후 8:00 **대극장**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한 '물부족' 문제를 무언의 몸짓으로 표현한 퍼포먼스극.

체코 스피트파이극단 '청중'

13일(수)~14일(목) 오후 8:00 **대극장**
체코 전 대통령이자 극작가인 체코의 영웅 바츨라프 하벨의 원작을 무대에 옮긴 작품.

스위스 앙페르파스 '테루엘'

16일(토) 오후 4:00 **대극장**
황소의 모습에 더 가까우며, 원초적인 야수성을 띠고 있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컨셉으로 잡아 연극과 무용, 음악, 영상, 무대기술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

동래학춤 16일(토) 오후 5:00 **야외공연장**
부산시지정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된 동래학춤의 무대.

프랑스 도자두극단 '제2막'

19일(화) 오후 8:00 **대극장**
시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대사들의 몸짓과 움직임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어린이뮤지컬 '아채친구 야미'

일 시 | 5월 9일(토)~10일(일), 23일(토)~24일(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일요일 오전 11:00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문화락 1600-1602



...
자, 멋쟁이 신사 버섯 등 아채친구들이 편식하지 않고 건강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재미나는 노래와 율동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대답하는 즐거운 어린이 뮤지컬 공연 '아채친구 야미'. 햄버거, 소시지, 콜라, 피자 등 인스턴트 식품에 익숙한 어린이들에게 부끄럼쟁이 당근과 사랑스러운 울보 양파, 율통불통 착한 감자, 멋쟁이 신사 버섯 등 아채친구들이 편식하지 않고 건강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2015 을숙도 연극열전

일 시 | 5월 10일(일)~30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청소년 1만 5천원
문 의 | 극단 맥 625-211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10일~11일 체코 스피트파이어 '청중'



14일 프랑스 극단 도자두 '제2막'

2009년과 2011년, 그리고 올해 부산국제연극제에 초청받아 세 번째 방문한 극단 도자두의 무대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몸짓과 움직임만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체코 대통령이자 극작가였던 바츨라프 하벨의 전설적인 작품 '청중'을 각색한 작품으로, 조각가 파울리나 스카보바에 의해 디자인된 커다란 가면과 공연을 위해 특별히 작곡된 시반 엘다르의 음악이 관객의 시각과 청각을 사로잡는다.

15일~16일 벨기에 극단 찰리와테 '섬...물을 찾아서'
2012년 아비뇽 OFF 페스티벌 최고의 흥행작으로, 물 부족의 심각성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실천성을 이야기한다.

18일~19일 스위스 극단 INTERFACE '테루엘'
2014년 아비뇽 OFF 축제기간 관객들이 뽑은 최우수상 작품으로, 관능적이면서도 감각적인, 강렬한 매력의 무대를 선사한다.

22일~23일 극단 더블스테이지 '라랄라 흥신소'
돈가방에 현혹되어 꼬마 죽이기에 나선 흥신소 직원들의 한바탕 소동을 그린 블랙코미디극.

26일~27일 극단 알 '철부지들'
'로미오와 줄리엣'의 발상을 뒤집은 작품으로, 서로 원수인척 서로의 자녀를 이어주려는 두 아버지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마치 영화나 소설에 등장하는 비극적인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는 철없는 아이들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29일~30일 극단 맥 '꼭두'
'꼭두'는 한국 전통상례에서 망자를 묘지까지 모시는데 사용되는 상어를 장식하는 나무조각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는 저승사자를 통해 우리의 내세관, 죽음을 관을 전통연희 양식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연극 '도둑과 연인
(부제: 사랑 톡톡톡!)

일 시 | 5월 15일(금)~16일 1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3:00(5/25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공간소극장 611-8518



...
지난 2012년 12월 초연무대를 가진 후 4번째로 무대에 오르는 '도둑과 연인'은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도둑과 아등바등 살아가는 연인의 어설피거나 아픈 삶을 웃음 가득한 해학으로 승화시켜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 작 · 연출/전상배 • 기획/황미애
• 출연/김지희, 박현민, 곽도영, 안교희

가정의 달 맞이 한결아트홀 기획공연
다함께 보는 고품격 가족극 '안데르센'

일 시 | 5월 13일(수)~2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3:00 **한결아트홀**
입장료 | 일반 3만원, 중고생 2만원
초등학생 1만 5천원, 4인 가족권 6만원
3인 가족권 5만원
문 의 | 한결아트홀 1588-9155



...
'안데르센'은 2015년에는 유엔 산하 아동청소년 국제문화기구인 아시테지 겨울축제에 공식초청되어 개막작으로 선보인 바 있다. 동물마임과 그림자놀이, 종이인형, 꼭두마임 등 다양한 형식으로 안데르센이 꿈꾸었던 세상을 아름답고 환상적으로 그려낸다.
• 출연/박인화, 허가에, 김하영, 홍민수, 김영학 외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작품을 작가의 삶과 엮어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가족극으로 탄생시킨 '안데르센'. 지난해 이윤택 극본, 이운주 연출로 '국립극단 봄마당 젊은 연출가전에서 첫선을 보인 후 관객과 평단의 뜨거운 호평을 받았던

연극 **만들레 바람되어**

일 시 | 5월 16일 토요일 오후 3:00, 6:00
17일 일요일 오후 2:00,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6만원, A석 5만원
문의 | ㈜문화락 1600-1602



전국 17만 관객을 올리고 웃긴 최고의 창작극 '만들레 바람되어', 살아있는 남편과 죽은 아내의 대화 아닌 대화라는 독특한 구성으로, 부부의 삶과 사랑, 그리고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풀이한 '만들레 바람되어'는 지난 2008년 초연 당시 창작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전회 매진, 객석점유율 115%를 기록하며 그 이듬해인 2009년과 2011년 앵콜공연 시 서울을 포함해 전국 20여 개 도시를 돌며 관객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 조재현, 임호가 아내를 그리워하는 순정파 남편으로 변신하며, 감초연기의 달인 이한위가 뒤늦게 아내의 사랑을 깨닫는 멋쟁이 할아버지로 출연한다.

- 작/박춘근
- 연출/김낙형
- 출연/조재현, 임호, 권진, 이한위, 이지현

코믹 마살아츠 퍼포먼스 **점프(JUMP)**

일 시 |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00, 7:00
24일 일요일 오후 2:00,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6만 6천, S석 5만 5천원
문의 | 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2005. 5.23 ~ 5.24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1644-5564

별 판매순위 1위, 미국 브로드웨이 '오픈러' 그랜드 오픈 등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끊임없는 사랑을 받아온 '점프'는 공연 최초로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고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의 전통무예인 태권도와 태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가 혼합된 코믹 마살아츠 퍼포먼스 '점프'. 2003년 7월 초연 이후 2005년, 2006년 2년 연속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판매순위 1위, 미국 브로드웨이 '오픈러' 그랜드 오픈 등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끊임없는 사랑을 받아온 '점프'는 공연 최초로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고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뮤지컬 **영웅을 기다리며**

일 시 | 5월 29일(금)-6월 2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 균일 4만원 (3인 이상 40% 할인, 학생 50% 할인)
문의 | ㈜디오르골씨어터컴퍼니 664-7880



난중일기에 찢겨진 페이지에서 착안, 이순신 장군의 3일간의 미스터리를 기발한 발상의 코미디로 재구성한 뮤지컬 '영웅을 기다리며'. 평범한 인간 이순신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시작된 '영웅을 기다리며'는 치열한 전투현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이순신이 자신을 암살하려 온 일본 무사에게 사로잡혀 3일간 동행하는 내용으로, 배고프면 서럽고 열 받으면 욕도 잘하는 인간적인 이순신을 만날 수 있다. 잠 못드는 이순신의 육두문자 화음이 만들어낸 기발한 뮤지컬 넘버와 한밤중 부르짖는 세레나데 등 참신하고 재미있는 18곡의 뮤지컬 넘버와 파워풀한 안무가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Event 행사

2015 제29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일 시 | 5월 9일(토)-23일(토)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예술회관
문의 | 부산예총 631-1377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연과 경연이 펼쳐지는 제29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주요일정

청소년 시상총대회 9일(토)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학생사진 공모전 8일(금)-14일(목) 부산시민회관 1층 전시실
학생그림 공모전 8일(금)-14일(목) 부산시민회관 2층 전시실
청소년가요제 및 합창댄스경연대회 9일(토) 예선, 23일(토) 본선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청소년 차세대 페스티벌 11일(월)-12일(화)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15일(금)-16일(토)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부산청소년무용제 16일(토)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청소년 건축상사마당 17일(일)-22일(금)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파게그니니 내한공연

일 시 | 5월 31일 일요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클래식의 틀을 깨고 재치와 유머, 감성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음악메들리를 선사하는 파게그니니 내한공연.

지난 2009년 제6회 부산 국제연극제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한 후 2013년 부산 국제연극제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관객들에게 가장 인기있었던 작품으로 꼽히면서 그 해 개막작으로 다시 초청받은 스페인 신체 코미디극 극단 YL-LANA Production의 '파게그니니'는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리는 음악가 파가니니를 모티브로, 4명의 전문 연주자들이 클래식은 연습하다는 틀을 깨고 무대를 흥취무진하며 관객들을 색다른 음악의 세계로 안내한다.

- 연주/아라 말리키안(리더, 바이올린), 에드와르도 오르테가(바이올린), 페르난도 클레멘테 Fernando Clemente(바이올린), 게오르기 퍼드나예브(첼로)

Dancing 무용

신은주무용단 **전통과 재창조 '춤-바라'**

일 시 | 5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일반 3만원, 청소년 1만원
문의 | 김소현 626-3037, 010-6775-8867



|프로그램|

1부 맥 바라/연등바라춤, 양산 사찰 학춤, 호걸 양반춤
2부 굿 바라/성주풀이, 신푸리 3부 춤 바라

- 사회/이병욱(용인대학교 명예교수)
- 특별출연/학산 김덕영(경남무형문화재 제3호 한량무 보유자), 김정희(동해안 별신굿 전수조교), 부산물물연주단

1997년 부산의 중견춤꾼 신은주를 중심으로 결성된 신은주무용단의 창작춤. 전통적인 정서와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온 신은주무용단은 실험적인 메소드 공연과 레퍼토리 공연으로 춤 애호가 뿐 아니라 대중과의 공감대를 넓혀오고 있다.

제19회 민병수발레단 정기공연

일 시 | 5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부산대학교 510-2947

부산대학교 민병수 교수를 주축으로 졸업생, 재학생들로 구성된 민병수발레단의 19번째 정기공연. 매년 1차례 정기공연을 비롯 대학무용제, 부산국제무용제, 해변무용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는 민병수발레단은 이번 무대에서 베르디, 알비노니, 라흐마니노프 등 세계적인 작곡가 3인의 음악에 맞춘 신고전주의풍의 발레작품을 선보인다.

- 예술감독, 안무/민병수



박은생展 '흔적'

일 시 | 4월 10일(금)-5월 11일(월) 갤러리 Form
문의 | 갤러리 Form 747-5301

유은석 개인전 '농담의 재구성'

일 시 | 4월 11일(토)-5월 12일(월) 오픈스페이스 배
문의 | 오픈스페이스 배 724-5201

박서보 개인전

일 시 | 4월 23일(목)-6월 8일(월) 조현화랑 부산
문의 | 조현화랑 부산 747-8853

존 버거맨 기획전 'Burger World展'

일 시 | 4월 26일(일)-5월 24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2015년 문화복음화의 해 특별기획 3

김영화 초대전 '사랑·나눔·여행'

일 시 | 4월 29일(수)-5월 9일(토)
가톨릭센터 대청갤러리
문의 | 가톨릭센터 462-1870

무지크바움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일 시 | 5월 9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무지크바움에서 2013년부터 매월 진행중인 클래식과 재즈 마니아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5월 무대.

프로그램

1부/파리 콘서트, 2014 프랑스 혁명기념일, 다니엘레 가디, 프랑스국립오케스트라 리 윗나워, 오버타임 라이브, 2005

2부/프레드 허쉬, 피아노솔로, 생떼미리옹 재즈 페스티벌, 2013 제임스 테일러, 비컨씨어터 라이브, 1998

• 기획 및 진행 / 손명균, 박형석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제152회 시마당 시낭송회**

일 시 | 5월 26일 화요일 오후 6: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의 | 회장 안태봉 010-8374-0626

Display 전시

고은사진미술관 연례기획전 **부산 참견錄-이갑철展**

일 시 | 3월 7일(토)-5월 27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 연례기획전 **중간보고서-백승우展**

일 시 | 3월 7일(토)-5월 27일(수)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
문의 |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 744-3924

와일드라이프 사진전

일 시 | 3월 19일(목)-6월 30일(화)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백산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초·중·고생 9천원
유아(24개월 이상) 8천원
문의 | 부산시민공원 642-5747
www.wildlifekorea.com

타워갤러리 특별기획 '오월의 향연' 전

일 시 | 5월 1일(금)-5월 30일(토) 타워갤러리
문의 | 타워갤러리 464-3939

Harmony of Flower
-김은기, 류제비, 신홍직, 안광식

일 시 | 5월 4일(월)-6월 2일(화) 갤러리 아인
문의 | 갤러리 아인 747-2612

오드리 햅번, 뷰티 비อนด์ 뷰티

일 시 | 5월 9일(토)-9월 6일(일)
영화의전당 특설전시관
입장료 | 일반 1만 2천원, 대학(원)생 1만원
청소년 8천원, 초등학생 이하 6천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스페이스 움 초청기획 **제2회 동래병원 도예기획전 '희망을 빛는 사람들'**

일 시 | 5월 18일(월)-5월 30일(토) 스페이스 움
문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New BOOK... 박현주 북칼럼니스트



※ 사이클 시크 CYCLE CHIC

미카엘 콜발레-안데르센 지음, 김경주 옮김 / 북노마드 / 296p / 1만 6천 800원
2007년 미카엘 콜발레-안데르센이 처음 만든 단어인 '사이클 시크(CYCLE CHIC)'는 자전거와 함께하는 '패셔너블한' 일상 그 자체를 가리킨다. 그는 자전거와 함께하는 삶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으며 '코펜하겐 사이클 시크'라는 자신의 블로그에 자전거 타기와 도시적인 스타일링을 기록해왔다. "두 바퀴 위의 사토리얼리스트"라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표현처럼, 그가 기록해온 '사이클 시크'는 삶의 가치에 있어서도 아름다움에 있어서도 뒤지지 않는다. 화보만 보면 단순히 자전거 패션 사진집 정도로 오해할 수 있지만, 사진과 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전거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자전거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에 대한 여러 가치관을 공감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도심 라이더들과 패셔니스타들이 즐겨 찾아온 이 책은 그저 화보를 넘겨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자기 삶을 사랑하는 일에 동참하는 기회까지 준다. 저자 미카엘 콜발레-안데르센은 자전거 문화가 발달해 있는 덴마크 출신으로, 국경과 대륙을 넘나들며 세계 곳곳에서 도심을 가로지르는 '두 바퀴 위의 사토리얼리스트(The Sartorialist on two wheels)'를 자신의 카메라에 빠짐없이 담아냈다.



※ 세계문화유산 100배 즐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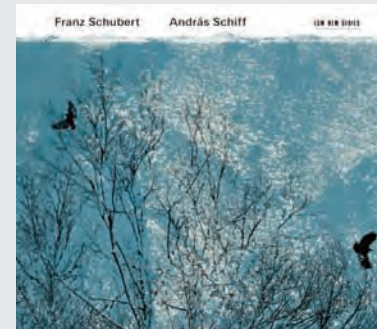
오주환 지음 / 상상출판 / 368p / 1만 5천 900원
사적 제3호인 수원화성은 1997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그런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까지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다. 수원화성이 복원된 문화재라는 이유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심사단은 등재를 꺼렸다고 한다. 그런데 <화성성역의궤>가 발견되면서 심사단의 마음을 움직였다. 우리나라가 임의로 수원화성을 복원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록에 따라 축성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복원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수원화성은 "고도로 발달된 과학적 특징을 고루 갖춘 근대초기 건축물의 뛰어난 모범"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불국사, 석굴암, 경주역사지구, 종묘, 해인사장경판전, 수원화성, 고인돌, 창덕궁, 조선왕릉, 양동·하회마을, 남한산성, 제주도 자연유산 등은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을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가치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세계문화유산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유산들을 중심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재다. 그래서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대표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일은 곧 우리 고유한 문화를 이해하는 지름길이 된다.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을 여행하는 데 좋은 안내서가 되어줄 책이다.



※ 고물과 보물

윤준호 지음 / 난다 / 408p / 1만 4천 원
"12시에 만나요~ 부라보콘!" 197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낸 세대는 부라보콘의 출현에 열광했다. 아이스끼기와 하드를 깨물거나 빨아먹다가, 입안에 넣으면 스르륵 녹아버리는 부드럽고 달콤한 세상으로 순식간에 이동했다고나 할까. '부라보콘'은 아이스크림콘의 대명사였으며, 또한 하나의 브랜드였다. 다양한 이름의 제품이 나와도 여전히 그 형태의 아이스크림콘을 통칭하는 브랜드로 기억에 남아 있다. ABC포마드, 가정표양말, 갓표비늘, 범포 운동화, 금성라디오, 낙타포 문화연필, 동춘서커스단, 락히치악, 문교 흑판, 비둘기호, 뿌리깊은 나무, 삼중당문고, 삼천리호 자전거, 원기소, 선데이서울, 소년중앙... 이름만 들어도 그 시절의 추억이 물밀 듯 밀려오는 것 같이 많은가. '20세기 브랜드에 관한 명상'이라는 부제 아래,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60가지 우리 브랜드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나왔다. 저자인 카피라이터 윤준호는 윤제림이라는 이름의 시인이기도 하다. 특유의 익살맞으면서도 따뜻한 문체로, 더불어 투명하면서도 날카로운 사유로 풀어내고 있다. 언제나 우리 옆에서 함께 할 것 같았으나 이제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린 브랜드들에 대한 추억을 안겨주며 시대의 변화를 아울러 느끼게 한다.

New Album... GM뮤직 제공



※ 안드라스 슈프 - 프란츠 슈베르트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G장조 D.894, B장조 D.960, 악흥의 한때 D.780, 즉흥곡 D.935, 헝가리 멜로디 B단조 D.817, 알레그레토 C단조 D.915 <2CD>

피아니스트 안드라스 슈프가 '디아벨리 변주곡' 음반을 통해 얻은 시대악기 연주에 대한 해답을 슈베르트에 쏟아 부었다. 안드라스 슈프는 1980년대부터 고민해오던 포르테피아노의 가장 이상적인 슈베르트 사운드를 본 베토벤 하우스에서 1820년 열린 비엔나의 프란츠 브로드만의 포르테피아노 연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빈 기질에 가장 어울리는 정감과 향수 어린 노래가 깃든 음향을 통해 들려오는 피아노 소나타 D.894의 어린 표현들과 D.960의 깊이 있는 우주는 슈프가 말하고 있는 이상적 슈베르트를 그대로 대변한다.



※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사후 40주년 기념 영상물<한글자막> (DVD:8장, 블루레이:4장)

발레리 게르기에프와 그의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외에는 그 누구도 시도할 수 없는 음악역사의 새로운 금지탑!

발레리 게르기에프와 그의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외에 이러한 도전을 감행할 만한 경우는 없다. 단 1년의 기간 동안 쇼스타코비치가 남긴 15개의 교향곡들과 6개의 협주곡 전체를 파리의 살르 프레엘에서 녹음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협주곡 전곡 영상물이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작곡가들 가운데 한 명이다. 그의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의 배경, 사회적 환경과 정치적 상황,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요구와 자신의 내적 부름 사이의 미묘한 줄타기 등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한 까닭에 그는 상황에 맞게끔 다양한 얼굴을 갖고 살아야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스타코비치가 진정한 음악의 천재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 쇼스타코비치 사후 40주년 기념 영상물이 첨가되어 있다. 게르기에프가 직접 각 작품을 해설하는 동시에 역사적인 기록 영상물들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곡가의 삶과 작품을 되돌아본다. 또한 각 교향곡과 협주곡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자세한 해설이 프로그램 북에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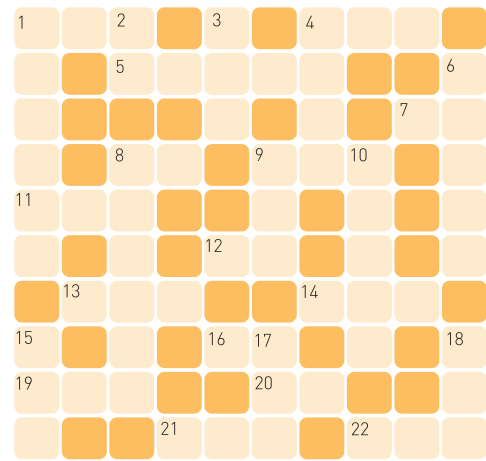


※ 모차르트 : 마술피리<한글자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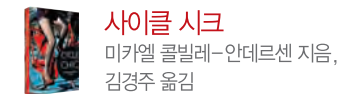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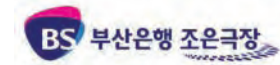
막시밀리안 슈미트(타미노), 크리스티나 란트사머(파미나), 토마스 올리만스(파파게노), 이리데 마르티네스 (밤의 여왕) 외/마르크 알브레히트/네덜란드 오페라

'마술피리'는 1791년 9월 30일 빈 외곽에 위치한 한 작은 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음악애호가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던 작품이다. 이 작품과 프리메이슨의 관계는 지금까지 많은 호사기들의 논쟁거리로 남아있으며, 동화의 큰 틀 속에 심오한 철학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독특한 내용과 모차르트의 천재성이 유감없이 발휘된 매력적인 음악은 이 작품을 가장 큰 인기를 누린 오페라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현재도 수많은 연출가들이 자신들만의 개성적인 시각으로 이 작품을 재해석하고 있는데, 영국을 대표하는 극단인 '컴플리시테'의 예술감독인 사이먼 맥버니 역시 다양한 프로덕션 영상, 전문 배우들의 창의적인 팬터마임, 공간을 효과적으로 분배한 헝가리 무대 등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이 작품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흥미진진하게 연출하였다. 이번 영상물에는 2012년 12월 네덜란드 오페라에서 공개되었던 프로덕션의 초연무대에 연기와 노래 모두를 만족시키는 신예 가수들의 활약과 마르크 알브레히트의 역동적인 지휘가 더해졌다.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문학동네 | 031-955-8869
 엘로인 플라워 | 080-337-3370



가로열쇠

- 5월 27일 부산문화회관 기획전 '국악과 양악의 어울림 아리랑, 애 아리랑' 사회자로 부산을 찾은, 영화 '서편제'의 주인공.
- 백두산, 지리산, 금강산, 묘향산과 함께 대한민국 오악(五嶽)에 포함되는 명산. 세 봉우리인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가 큰 삼각형으로 놓여 있어 삼각산(三角山) 또는 삼봉산(三峰山)이라 불리는 서울의 진산이다.
- 각 경기종목의 국가대표, 또는 예비국가대표 선수들이 합숙 훈련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유일한 대규모 종합 선수 합숙훈련장.
- 토지를 바탕으로 한 정치, 경제, 사회적 개혁을 꿈 꾸 조선 후기 실학의 토대를 마련한 실학자, 자신의 호를 딴 성호학파를 형성함으로써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대표적인 저서로 '성호사설(星湖叢說)', '곽우록(郭宇錄)' 등이 있다.
- 부정기 간행물로, 잡지의 형식과 서적의 내용을 절충한 새로운 형태의 출판물로, 잡지(magazine)와 서적(book)의 합성어.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소설로, 조선시대 한글 소설이자 판소리게 소설. 양반 자제의 기생 딸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로, 조선 후기의 평민 의식을 담고 있다.
- 1987년 1집 앨범 '사랑하기 때문에'를 남기고 2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싱어송라이터.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그의 이름을 딴 음악경연대회를 열고 있으며, 수상자로 1989년 1회 수상자인 조규찬을 필두로 유희열, 고찬용, 김연우, 나원주, 정지찬 등이 있다.
- 예전에 있던 사물들의 시대, 가치, 내용 등을 옛 문헌이나 물건에 기초하여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힘.
-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크레타의 왕 미노스와 파시파에의 딸 이자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의 두 번째 아내. 의붓아들들을 사랑해 자살한 비극적 인물로, 000 컴플렉스라는 심리학 용어까지 낳았다.
- 왕실의 변영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기 위해 왕비 또는 왕이 추는 춤으로, 20세기 초 뛰어난 예술가였던 한성준이 무대공연작품으로 완성했다.
- 24절기의 하나. 청명(淸明)과 입하(立夏) 사이에 들며, 봄비가 내리서 온갖 곡식이 싹틔어진다고 한다.
- 3월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뉴질랜드와의 평가전을 끝으로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벗은 축구선수, 한국 축구계의 전설이었던 차범근의 이들로, 지지치 않는 체력으로 '차미네이터'로 불리기도 한다.
- 조선 22대 국왕. 어린시절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눈 앞에서 목도하고 역대 어느 왕보다도 드라마틱한 삶과 역사에 길이남을 업적을 고루 남겼다.

⑧ 제주도의 옛 이름. 4세기 중엽 백제에 속했다가 백제 멸망 후 신라에 속했고, 고려 시대에는 다시 고려에 속하였다. 고려 중종 때 이곳에 군을 설치하여 고려의 군현이 되었으며, 한 때 원나라의 탐라 총관부가 설치된 적도 있었으나 충렬왕 때에 되찾아 제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⑨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미사 음악. 6월 4일 부산 시립합창단이 베르디 000으로 관객과 만난다.

세로열쇠

- 가스통 르 루의 동명소설을 각색하고 작곡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작곡한 뮤지컬로, 그 당시 부인이었던 사라 브라이트만이 주인공으로 출연, 일약 뮤지컬계의 신데렐라로 떠올랐다.
- 동아시아 고대 전설 속의 '사비와 선악을 판단하여 안다고 하는 상상의 동물'로, 해치(解多)가 원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는 속성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관리들을 감찰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헌부를 지켜주는 상징으로, 오늘날에는 국회의사당과 대검찰청 앞에 이상이 세워져 있다.
- 당나라에서 활동한 고구려 유민 출신의 장군. 최근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략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으며, 세계 최초로 섬유질의 제지법이 그에 의해 유럽에 전파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 홍상수 감독의 열두 번째 영화이자 두 번째 흑백영화. 어느 영화감독의 궁색한 일상에 관한 이야기로, 모든 장면을 인사동 북촌마을에서 촬영했다.
- 시대를 넘어 국가와 언어를 초월하는 연극의 힘을 보여주는 영국의 극작가로, 올해 부산국제연극제의 컨셉.
- 미국의 권투선수.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쓰겠다'는 어록으로 유명하며, 1980년대 초부터 파킨슨병을 앓기 시작해 현재는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다.
- 불이 되면 온몸이 나른해지고 이유없이 졸음이 쏟아지는, 일종의 생리적인 피로감.
-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의 장편소설. 러시아 건국 이래의 일대 역사적 사건인 1812년 전쟁을 배경으로 러시아 문헌뿐 아니라 세계문학에서 최고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 신라 최초의 불교승려사.
- 구한말, 채신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 고종 21년(1884년)에 두었다가 갑신정변 이후에 없앴다.
- 오페라 '토스카', '나비부인'과 함께 푸치니의 3대 걸작 오페라. 파리의 뒷골목 다락방에 살고 있는 시인 루돌포, 철학자 코르리네, 음악가 쇼나르 등 보헤미안 가정을 가진 4명의 방랑생활과 우정, 그리고 폐결핵을 앓는 소녀 미미와 루돌포의 슬픈 사랑을 줄거리로 하고 있다.

부산시민을 위한 오페라 감상특강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페라 20선 중 유명 아리아를 오페라 연주가의 이야기를 통해 듣고, 오페라 가수가 이야기하는 무대 위 뒷이야기와 관객은 미처 알지 못했던 무대 속 이야기를 통해 오페라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연주형 강의 프로그램

강사

- 5월 11일 소프라노 윤선기
- 5월 18일 테너 김지호
- 6월 1일 소프라노 구민영
- 6월 8일 바리톤 윤오건
- 6월 15일 소프라노 왕기현
- 6월 22일 베이스 김정대
- 6월 29일 테너 양승엽
- 7월 6일 JAM 코러스
- 7월 13일 테너 임성규
- 7월 20일 소프라노 김유진

운영기간 : 5월 11일(금)~7월 20일(월) (기간 중 총 10회 실시)

시간 및 장소 : 매주 월요일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접수기간 : 4월 27일(월)~5월 8일(금)

모집인원 : 100명(수강료 납부 순서로 선착순 모집 마감)

수강료 : 8만원(10회권 수강자 및 정기회원), 회당 1만원

※정기회원 및 10회권은 사전접수

신청방법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

사무국 홍보팀 전화(607-3102~4) 접수

지나호 정답

오 스 카 상 바 알 페 루
 즈 리 위 모 트 킷 리 바 트 라 바 리
 의 마 법 사 공 동
 리 바 리 스타
 오 디 세 이 주
 네 을 레
 트 역 린 한
 상 모 고 비
 기 야 구
 역 지 사 지 전
 론 리 허 설
 톤 산 화

4월호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초대권	김영권(사상구 병정로) 남하윤(서구 꽃마을로) 박장환(동래구 충렬대로) 오동숙(수영구 광안해변로) 최성덕(해운대구 우동3로)	큰집 식사권	민효식(북구 양달로) 양봉규(해운대구 대천로) 윤영인(남구 오륙도로) 이은미(서구 구덕로) 최성숙(금정구 부곡로)
문학동네 도서	공선화(창원시 진해구 안청로) 박현철(사상구 백양대로) 박희정(남구 수영로) 조동우(기장군 기장을 차성로) 허태순(수영구 수영성로)	조은극장 초대권	김진영(서구 망양로) 이승은(사상구 가야대로) 정진옥(부산진구 동명로) 조현선(동래구 복천로) 최윤희(동래구 금성로)
엘로인 플라워 꽃다발 증정권	양정인(남구 전포대로) 황미애(수영구 황령대로)	* 생일, 결혼기념일 등 축하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두분을 추첨해 꽃다발 증정권을 드립니다.	

NEWS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일본 삿포로 '한국 천년의 소리' 공연 참가



5월 20일 수요일 오후 6:30 일본 삿포로 시민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5월 20일 일본 삿포로 시민홀에서 열리는 '한국 천년의 소리' 무대에 선다.

'한국 천년의 소리'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외교부에서 주최한 2015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전국 지자체 공연단 선정공모에서 당선된 공연으로, 1부에서는 전통음악과 무용, 2부에서는 창작국악관현악으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채수만 악장의 집박으로 진행되는 1부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음악으로 불리는 궁중음악 '수제천'을 시작으로 따뜻한 봄날(春) 피꼬리(鶯)가 지저귀는(轉) 모습을 우리 고유의 몸짓으로 표현한 '춘앵전', 남도지방의 무속음악에 바탕을 둔 즉흥성이 강한 '시나위', 장구 장단에 맞춰 추는 흥겨운 '장구춤'을 선보인다. 이날 무대에서 '춘앵전'은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부수석 유여진이, '장구춤'은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단원 안민진, 박혜미, 여혜린, 배민지가 선보인다.

2부에서는 '남도아리랑(백대웅 곡)'과 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현악 '신모듬(박범훈 곡)'등 창작국악관현악과 한·일 양국의 민요 메들리를 선사한다. '남도아리랑'은 한국, 중국, 일본의 3개국 오케스트라인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해 작곡한 곡으로,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이 넘치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이주현(쟁과리), 전학수(장구), 최오성(징), 박재현(북)이 연주하는 '신모듬'은 사물의 경쾌한 리듬에 관현악의 신명이 더해진 열정적인 무대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 부수석 정선희는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리랑과 아시타카셋키, 날개를 주세요 등 민족의 오랜 정서가 담긴 양국의 민요와 노래를 들려준다.

이밖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5월 21일 오후 3시 와타나베 준이치 문학관 공연홀에서 '한국전통음악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워크샵도 펼칠 예정이다.

부산문화회관, 부산공업고등학교와 MOU체결



문화예술 공연의 활성화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청소년 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3월 부산문화회관과 부산공업고등학교가 MOU를 체결했다.

부산문화회관은 부산문화회관과 가장 인접한 부산공업고등학교와의 전략적 문화예술 제휴를 통해 문화예술장르와 친숙하지 못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의 다양한 공연, 교육 콘텐츠를 제공, 미래 잠재고객이 될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객원지휘자 모집 공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는 창작음악의 활성화와 젊은 지휘자 인재 양성을 위한 등용문으로 2015년 '3인 3색 음악회'를 지휘할 신진 객원지휘자를 모집합니다.

| 공연개요 |

- 공연명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공연 [3인 3색 음악회]
- 공연일시 : 2015. 9. 18(금) 19:30
- 공연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767석)

| 모집 개요 |

- 응시자격 : 국·내외 대학 지휘전공 졸업자 또는 전국 시·도립 국악관현악단에서 객원지휘 경력이 있는 자
- 모집인원 : 3명 이내

| 참가신청 |

가.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연주했던 프로그램 첨부(해당자에 한함), 프로필 1부,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최종학력증명서 1부, 연주 지휘 동영상 (DVD) 파일(15분 이상 제출)

나. 접수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내 국악관현악단 운영담당자 앞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방문접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내 국악관현악단 운영담당자 앞

- 우편접수 :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내 국악관현악단 운영담당자 앞(우608-811)
- ※ 봉투에 [3인 3색 음악회] 응시지원 필히 기재

라. 접수기간 : 2015. 5. 1(금) - 5. 26(화) 17:00

- 마. 전형방법 : 심사위원회를 통한 서류 전형 및 동영상 심사
- 바. 합격자 발표 : 2015. 6. 10(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게재

| 기타사항 |

- 가. 전형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나. 최종합격자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내 국악관현악단 운영담당자 (051-607-3143)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창녕 우포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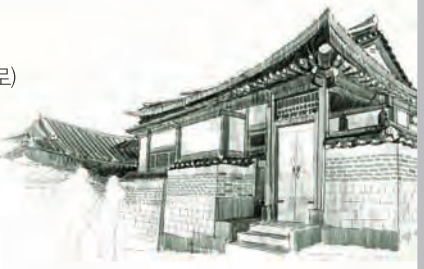
7월 10일(금)

자연의 보고 창녕 우포늪 자연생태교육

원시적 저층 늪이 그대로 간직된 우포늪, 약 2백31만㎡(70만여 평)에 이르는 천연 늪속에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며 동식물의 천국을 이루고 있는 자연의 보고 우포 여행. 이른 아침 우포늪 독을 걸어보며 환경의 소중함, 위대한 자연의 가치를 함께 배워본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 10:00 창녕 도착, 우포늪 생태탐방(수생식물 직접 만져보고 관찰하기, 모둠별 미션으로 풀어보는 나무 이야기, 늪에서 신나게 놀기)
- 12:30 중식
- 14: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우포생태음악회
- 15:00 비화기야의 역사가 깃든 창녕박물관
- 16:00 부산으로 출발

5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 회원 김수정(해운대구 대천로) 류혜재(해운대구 양운로) 박교순(수영구 감포로) 송만오(남구 석포로) 안지영(연제구 거제천로) 오인숙(수영구 광일로) 임대원(해운대구 좌동순환로)	장미정(금정구 금강로) 정영호(금정구 서곡로) 최미라(남구 석포로)	문정임(남구 향령대로) 우미경(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유영애(서구 천해로) 최정숙(서구 임시수도로) 하용진(수영구 수영로) 홍영희(수영구 광안해변로) 황광주(수영구 좌수영로)
기존 회원 권호경(동래구 명륜로) 김미재(서구 충무대로) 김미정(해운대구 마린시티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 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양식을 부산시립예술단 홍보팀으로 보내주시고,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는 회원 부담)

- | 신청방법 | 엽서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팀(607-31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환경과 문화가 함께 하는 **에코투어 2**

지난해 8월 정기회원 테마여행 100회를 맞아 기획된 환경과 문화가 함께하는 에코여행을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올해 하반기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환경의 소중함을 생각해보고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의 향기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에코투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최 부산문화회관,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문의 부산문화회관 사무국 홍보팀(607-3100)



7월 10일

자연의 보고 창녕 우포늪 자연생태교육
 1억 4천만년의 역사를 간직한 자연의 보고 우포늪의 역사와 생태, 수생식물 등을 살펴보고 환경의 소중함, 위대한 자연의 가치를 배워보기(우포늪 독 탐방, 수생식물/나무 관찰, 늪에서 신나게 놀기, 우포생태음악회)



10월 2일

하동 지리산 생태탐방
 스로우시티 약양을 방문, 지리산을 따라 흐르는 섬진강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섬진강변 걷기로 힐링을 경험(생태해설사와 함께 지리산의 야생화·곤충, 지리산의 습지동물, 우주의 생명과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교육 진행, 섬진강변 음악회)



8월 14일

도심 속 생태습지 울주군 회야댐 생태습지 탐방
 수생식물 성장과 연꽃 개화 시기 등에 맞춰 7월~8월 두달간만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는 울산광역시 회야댐 생태습지 돌아보기(생태 습지에서 재배, 가공한 연잎차, 건연근 무료 제공, 연잎 차 시음회, 연잎 따기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참여, 회야댐 생태음악회)

11월 13일

합천 해인사 소리길 탐방
 7개의 다리, 500m에 이르는 데크, 오솔길들이 해인사에서 흥류동계곡까지 이어진 10여 개의 체험 코스로 유명한 해인사의 문화 생태탐방 명소 소리길을 국립공원 생태 해설사와 탐방(소리길을 품고 있는 해인사의 역사 탐방, 무용단 우리춤 체조)



9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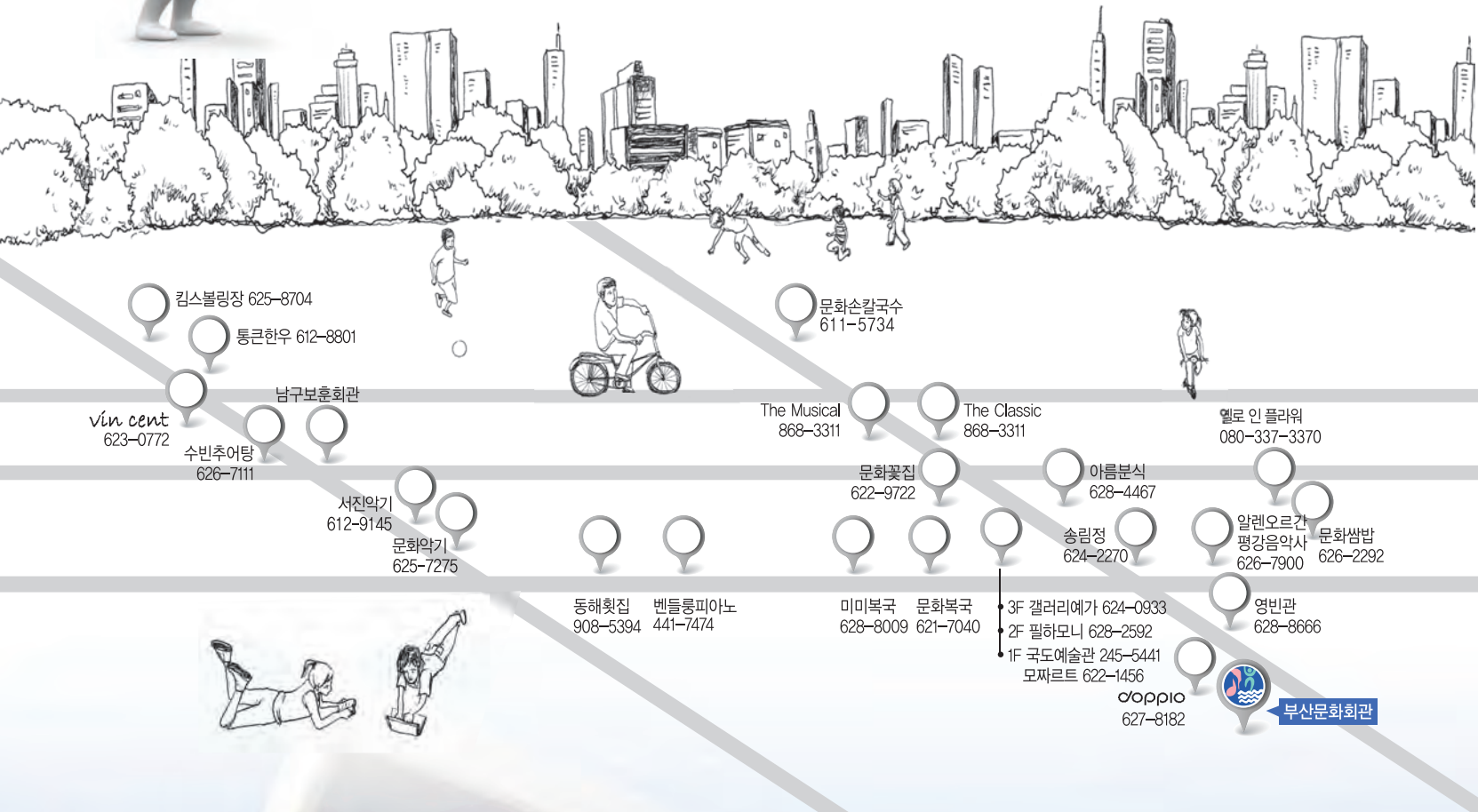
한려수도의 중심 사천 갯벌탐방
 육상과 해상의 생태계 완충작용과 연안 생태계 유지물로서 훌륭한 게 보존되어 자연생태 체험 관광지로 인정받고 있는 사천 갯벌탐방(하루 2회 모세의 가석이 일어나는 비토섬 갯벌과 디딤초체험 마을 체험, 사천갯벌 탐방로 둘러보기, 전국 최대 녹차단지외 폐철로를 활용한 다래와인갤러리 방문, 비토섬 음악회)

12월 12일

살아있는 자연사박물관 창원 주남저수지 철새탐방
 천연기념물 16여종과 환경부 멸종위기종 10여종 등 93여종의 다양한 철새가 감동을 전해주는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 주남저수지 철새탐방(주남저수지의 대표공간인 람사르문화관과 생태학습관 탐방, 주남저수지 생태교육, 목공예 체험, 철새와 함께 하는 겨울 음악회)



공연시간에 쫓겨 힘든 것 많으시죠.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주변 안내도입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및 공연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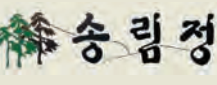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1층 Tel.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커피 10%할인 (커피에 한함)
Tel. 051-623-0772

Since 1981
philharmony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2층 Tel. 051)626-2592




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식사 5%할인
Tel. 051-624-227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시
평일 3천원, 주말·공휴일 4천원 할인
(화당 2매/조조, 심야, 3D 제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엘로인플라워 꽃상품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입구 본점 080-337-3370
대연혁신점 627-1253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시
디럭스 객실
정상가 300,000원 → 할인가 99,000원
(세금포함/조식불포함/상수기간 제외)
예약문의 : 051)678-10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752-9811(광안), 051-747-9812(해운대)



부산문화회관 & 굿월치과병원 협약기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덕천 | 33,6000 하단 | 209,6015 서면 | 606,60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850-05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929-50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819-0173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상품 20%할인 (일부품목제외)
안경나라(동래점) 051)505-8987



20 % Discount

센텀점 토다이

이 쿠폰과 문화회원 장외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 Discount

모차르트

이 쿠폰과 문화회원 장외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 Discount

센텀점 하나돈까스

이 쿠폰과 문화회원 장외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 Discount

Since 1981 필하모니

이 쿠폰과 문화회원 장외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 Discount

엘로인플라워

이 쿠폰과 문화회원 장외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 % Discount

연극 '살아보고 결혼하자'

- 쿠폰소지회원에게 최대 인 2개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발행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원 장외회원카드를 제시하여 할인됩니다.



20 % Discount

연극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 쿠폰소지회원에게 최대 인 2개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발행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원 장외회원카드를 제시하여 할인됩니다.



20 % Discount

연극 '도둑과 연인'

- 쿠폰소지회원에게 최대 인 2개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발행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원 장외회원카드를 제시하여 할인됩니다.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 □□□□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대연동)
 부산문화회관 홍보팀 (예술가의 초대) 담당자 앞
 608-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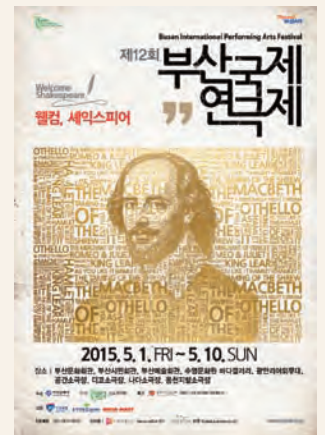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 1. 1 ~
 남부산우체국송신
 제265호

CULTURAL SCHEDULE

부산문화회관 5월 공연일정

청량 海의 부산 2015 May 5

1	19:30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프랑스 극단 디퓨전 '말괄량이 길들이기' 중극장 2만 5천원 · 2만원/(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
2	17:00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프랑스 극단 디퓨전 '말괄량이 길들이기' 중극장 2만 5천원 · 2만원/(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
	20:00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Dynamic Fringe_한국 연극공동체 DIC '맥베스, 그는 잠을 죽였다' 소극장 균일 1만 5천원
3	17:00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Dynamic Fringe_한국 연극공동체 DIC '맥베스, 그는 잠을 죽였다' 소극장 균일 1만 5천원
4~6	19:30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Concept_러시아 발틱 하우스 '맥베스' 대극장 2만 5천원 · 2만원/(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
4~5	19:30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축하공연 극단 누리에 '사조' 중극장 균일 1만 5천원/(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
4	20:00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Dynamic Fringe_한국 연극공동체 DIC '맥베스, 그는 잠을 죽였다' 소극장 균일 1만 5천원
5	17:00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Dynamic Fringe_한국 연극공동체
	20:00	DIC '맥베스, 그는 잠을 죽였다' 소극장 균일 1만 5천원
7~9	19:30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Concept_한국 극단 목화 '템페스트' 중극장 2만 5천원 · 2만원/(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
7~8	20:00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Dynamic Fringe_한국 극단 진일보 '바보 햄릿' 소극장 균일 1만 5천원
9~10	17:00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 이탈리아 Teatro Tascabile di Bergamo '로미오와 줄리엣' 대극장 2만 5천원 · 2만원
9	17:00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Dynamic Fringe_한국 극단 진일보
	20:00	'바보 햄릿' 소극장 균일 1만 5천원
11	14:00	부산시민을 위한 오페라 감상 특강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 국제회의장 균일 1만원/부산문화회관 사무국(607-3102~4)
	19:30	시민과 함께하는 2015 평화통일콘서트 대극장 초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866-6363)
11~12	19:30	제49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중극장 균일 1만원/부산피아노듀오협회(010-8524-7913)
11~22	16:00	2015 제29회 부산청소년연극제
	19:00	소극장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
13	19:30	어린이재단 초록우산을 위한 자선음악회 '한국가곡과 아리아의 밤' 중극장 균일 1만원/조운환(010-8455-2383)
14	19:30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5월에 듣는 내 마음의 노래들' 대극장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2)
	19:30	가보통 선교오페라단 새터민 선교를 위한 악극 '그 길에 목숨을 걸다' 중극장 균일 1만원/서명보(010-2567-3994)
15~16	19:30	제39회 부산피아노연구클럽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중극장 초대/부산피아노연구클럽(010-6565-3930)
16	15: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 창작음악극 '두부와 콩나물' 대극장 1만원 · 5천원/부산문화회관(607-6065)



토다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월일 정산 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임페리얼 타워 6층
예약 : 051)731-7000
※본행사는 토다이 센텀점에 한합니다.

모자이크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기림빌딩 1층
051)622-1456

하루돈까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빌리 210호
051)747-8244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기림빌딩 2층
051)626-2592

엘로인플라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꽃 상품 10% 할인
(일부상품 제외)
부산문화회관 입구 본점 080-337-3370
대연화선점 051)627-1253

연극 '열아홉살' 결혼여행

3.12(목)-5.17(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규일 3만원
장 소 : BS부산은행 조양극장 스티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조양극장 1588-2757

무지컬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4.2(목)-7.5(일) 오후 5:00, 8:00
(월요일, 5/26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규일 3만원
장 소 : BS부산은행 조양극장 2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조양극장 1588-2757

연극 '도둑과 연인'

5월 15(일)-6월 14(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3:00
(5/26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입장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 5천원
장 소 : 공진소극장
문의 및 예매 : 공진소극장(611-8518)

CULTURAL SCHEDULE

부산문화회관 5월 공연일정

2015 May 5

Table with 3 columns: Date, Time, and Event Name/Location. Includes events like '2015 부산신인음악회 대극장', '부산시민을 위한 오페라 감상 특강', '아모로제와 함께하는 봄의 향기',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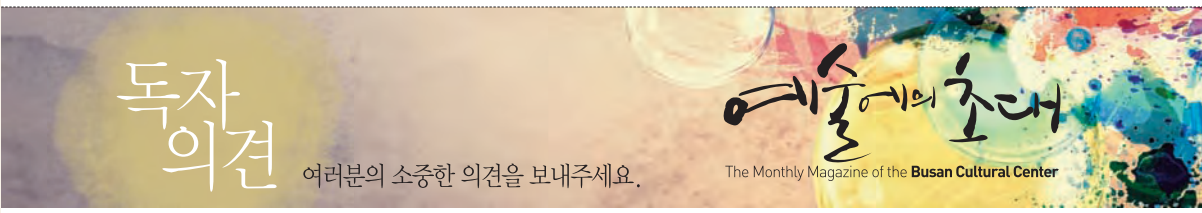
7월 테마여행 신청

보내는 사람

테마여행지 추천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대연동)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예의 초대> 담당자 앞
608-811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Grid of 22 numbered circles for rating responses.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개선해야 할 점은?



호국보훈의 달 기념
부산시립합창단 제157회 정기연주회

베르디 레퀴엠



Con. 윤의중 Sp. 김유섬 Ms. 추희명 Tn. 김중희 Br. 최종우
부산시립교향악단 창원시립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

2015. 6.4(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문의 홍보팀 607-3108 공연운영팀 607-3142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입장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19:00(공연있는 날에 한함)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5월 가정의 달 기념
문화나눔
콘서트

행복한 5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문화나눔 콘서트 **행복한 5월**

흥겨운 민요한마당

2015. 5. 1 (금)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 051-550-6611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문화나눔 콘서트 **행복한 5월**

Dance with Me

지휘 정병휘

2015. 5. 13 (수)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극장 ☎ 051-519-5661-3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문화나눔 콘서트 **행복한 5월**

팝&가요

지휘 조우현

2015. 5. 21 (목)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051-419-5571-4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와 함께하는 문화나눔 콘서트 **행복한 5월**

매직 브라스

세트드럼 정경식

2015. 5. 27 (수) 오후 7:30 북구문화빙상센터 공연장 ☎ 051-309-4685